



서로 배움여
함께 성장하는 정다운
우리 학교



서로 배움여
함께 성장하는 정다운
우리 학교



목차

- 4 여는 글
- 9 수원시평생학습관 주요기능
- 10 수원시평생학습관이 걸어온 길

- 14 2013 이렇게 일했습니다
- 16 누구나학교 그리고 누구나학습마을
- 24 지역협력사업
- 28 싱크탱크
- 32 인문학 프로그램
- 38 인큐베이팅사업
- 42 창의적 업무스킬
- 44 예술문화 프로그램
- 48 시민사회자료관 도요새책방
- 54 반딧불이상담실
- 56 담쟁이카페

- 58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2013 수원시평생학습관
- 62 통계로 보는 2013 수원시평생학습관
- 70 2013 교육프로그램 목록

- 81 프로그램 리뷰
- 82 수원평생학습한마당 '필우' 후기
- 84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인터뷰
- 87 심포지엄 스케치
- 90 공동체 영화상영 소개
- 92 인큐베이팅 99℃ 입주단체 인터뷰
- 95 인문학세미나 후기
- 97 길 위의 학교 후기
- 100 막걸리교실 후기
- 102 내 인생의 글쓰기 후기
- 104 도시생활자를 위한 일주일의 변화 후기

- 106 수원시평생학습관 사람들



공짜 점심이 있는 사회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12월 27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였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경쟁과 효율의 DNA

이 말은 경제학 용어이긴 합니다만 경제학을 전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이 갖는 함의를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부엔 테이크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다는 사실은 세상사의 자연스런 이치로 깊숙하게 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상대방의 선의나 호의를 베풀 경우 이에 대해 경제심을 품고 그 저의에 대해 먼저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뭘까?’ ‘설마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한테 저러겠어?’ ‘차라리 만나지 말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 어느새 본인은 단단한 방어막의 갑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네 일상사에서는 대가 없는 선의를 베풀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현상의 기저에는 자본제적 생활양식 즉 효율이라는 명분하에 작동되는 경쟁이 단단히 뿌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경쟁은 현대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운영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인은 물론이고 중고생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경쟁의 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협력과 연대보다 경쟁의 DNA를 이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홉스의 말을 처참한 심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연대와 협력의 DNA

자본제적 경제 시스템이 인류에게 막대한 물질적 풍요를 가져오게 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본주의가 갖는 미덕과 효율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결코 완전체는 아닙니다. 초기 자본주의 방식도 도전과 응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주되고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4.0 버전의 신자유주의 앞에 맨몸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현대인의 형해화의 근저에 있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협력과 연대의 방식으로 자연을 개척하고 삶을 이끌어 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사회의 작동원리가 아주 짧은 100~200년 사이에 급속히 대체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양극화라는 절박한 현대적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득격차는 단지 빈부의 문제뿐 아니라 학벌의 격차, 정보의 격차, 삶의 질의 격차로 이어졌고 더 이상 계층 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마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프란체스코 교황은 ‘통제 안받자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라는 표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경제방식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를 그리고 사회운영에 있어서는 협력과 연대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년 동안 인류의 몸 속에 깊이 박혀 있는 DNA를 호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드라마 <다모>는 보지 못했어도 이서진의 대사는 워낙 많이 회자되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대사는 애뜻한 감정을 가진 정인(情人)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이 독립된 개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물코처럼 엮여있는 관계입니다. 옆의 그물코가 출렁거리는데 내 그물코만 안전하거나 끄떡 없을리가요. 그러니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망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따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도시화, 효율화, 경쟁이라는 요소들이 이 공동체를 파괴시켰고 우리는 비자발적 선택에 의해 ‘따로 따로’ 살아갑니다만 그 공동체의 파괴가 결국 인간의 파괴에 이르자 사람들은 공동체의 복원에 대해 조금씩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의 복원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비원(悲願)같은 존재입니다.

OECD에서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발표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매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는 주거, 소득, 환경, 건강 등 11개의 생활영역에 대해 조사를 한 후 종합하여 이를 행복지수로 환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11개 생활영역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낮은 것은 다름아닌 ‘공동체’ 분야입니다. 생활영역의 평균 만족도가 5.35인 것에 비해 공동체 만족도의 경우 1.6으로 극히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원하지만 아

직은 그 공동체 활성화 정도가 매우 낮다보니 전체 행복지수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복원과 학습

그러나 사람들이 공동체의 복원을 꿈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괴는 순식간이지만 복원은 오랜 시간을 요합니다. 광화문의 현판이 찢겨 갈라지고 남대문이 복원 5개월만에 서까래 등 20여곳에서 단청이 훼손된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결국 조급한 복원공사가 그 원인입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이든 혹은 공동체의 복원이든 시간에 쫓기며 서두르다간 오히려 일을 그르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것이 올바른 방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복원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학습입니다. 학습은 공동체 활성화의 촉진제요, 문제해결의 시발점이자 공동체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보물창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 공동체 복원이라는 절실한 시대적 과제에 화답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탈 강의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탈 강의실’이란 시민들이 평생학습 기관에 찾아와 단순한 수강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 현장 곳곳에서 일상적 학습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배움이 개인의 지식습득이나 교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산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배달강좌제도 그렇고 남양주의 등대사업 그리고 저희가 펼치고 있는 누구나학습마을도 그러합니다. 아직 이런 모습이 평생학습계의 주류이거나 전면에 부상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지역의 요구, 주민의 요청, 우리 시대의 과제에 대한 각 지역별, 평생학습기관별 조건과 수준에 맞는 응대를 하고 있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수원시평생학습관의 전략사업

올 한 해 많은 강좌와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몇가지를 선정하여 힘을 집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나학교의 활성화와 누구나학습 마을의 정착’입니다. 누구나학교의 활성화는 단지 많은 강좌가 열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지표이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실험과 분양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학교는 그야말로 실험실입니다.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적인 도전과 실험에 나서야 합니다. 실험을 거쳐 안정적 형태를 보이는 사업은 다른 기관, 지역에 분양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흡한 면이 많이 보입니다.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인 셈이죠.

누구나학습마을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되었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한 한해였습니다. 그 가능성을 어떻게 현재화,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다음해의 과제로 넘어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발굴 및 인큐베이팅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수년째 일자리 문제가 시대적, 국가적 현안이고 중요한 아젠다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는 시대는 이미 종언을 고했습니다. 경제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질 않으니 GNP와 국민의 삶은 별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일자리 창출이나 기능 수련의 장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외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학습과 일이 맞물리는 사업을 개발하여 모델화하고 이런 방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고 그 결과 전문영역의 능력배양과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학습관 내에 인큐베이팅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 경제교육과 공정무역을 자기 콘텐츠로 하는 2개 팀이 입주하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자립을 위한 노력을 경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새로운 분야의 모델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생학습관의 싱크탱크 역할 강화’입니다. 학습관 식구들의 명함에는 ‘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이 새겨져 있습니다.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자가 아니라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최선의 방식을 만들어내자는 의지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조직적 표현으로는 싱크탱크의 역할인데 올해에는 ‘가르침과 배움의 경계를 허무는 시민주도 평생학습’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전국에서 3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일상적으로는 웹진 ‘와’를 통해 정보의 교류와 아젠다 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평생학습의 포털’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온라인 아카이브

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열개를 만들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축적하다 보면 평생학습 관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짜 점심을 위하여

세상사 다 그렇듯 의욕만 가지고 덩벼들어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2013년 평생학습관의 사업도 의욕이 넘쳐 스텝이 꼬이기도 했고 목표한 바를 전혀 실현하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그것대로 겸허히 인정하되 그러나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일에는 겁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에 걸맞는 실력을 쌓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취약점 중 하나는 사회적 자본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도 OECD 조사를 하면 매년 최하위권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공동체가 붕괴되고 사람의 선의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자본의 취약은 그런 원인이자 결과인 셈입니다.

엄격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당연히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만 우리네 일상사에서까지 그 원리가 작동하면 살기 참 팍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짜 점심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생학습계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에 저희 수원시평생학습관도 동참을 할 것입니다.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 관장

수원시평생학습관 주요기능





수원시평생학습관이 걸어온 길

The History of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2013

시민과 지역에 뿌리 내리는 평생학습

- 01.02. 2013년 겨울학기(1~2월) 개강 (46개 강좌)
- 01.10. 고등학생 봉사프로그램 누구나쌈 1기 시작
- 01.16. 2013년 명사특강 시작
- 01.30. 2013년 담쟁이 문화살롱 프로그램 시작
- 02.06. 2013년 찾아가는 학교 시작
- 02.12. 평생학습상담사 간담회 실시
- 03.04. 2013년 1학기(3~6월) 개강 (90개 강좌)
- 03.05. 도요새책방 함께읽기모임 시작
- 03.12. 평생학습상담사 2기 양성과정 시작
- 03.14. 2013년 수원평생학습 와글와글포럼 시작
- 03.19. 인큐베이팅센터 개관 및 라온경제 입주식
- 03.20. 누구나학교 언제나 응원단 발족식
- 03.26. 거점 누구나학교 오픈 교육 실시
- 04.01. 수원시민 인문대학 3기 시작 (10개 강좌)
- 04.01. 도요새책방 특별 전시전 (책 읽는 마을 이야기)
- 04.13. 도요새책방 1주년 기념행사
- 04.25. 2013년 수원시평생학습관 시민제작 일상학 습 심포지엄 개최
- 04.25. 평생학습상담사 2기 양성과정 수료식
- 04.30.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누구나학교 설명회 개최
- 05.05. 누구나학교 KBS '1대100' 녹화 참여
- 05.07.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시작
- 05.13. 평생학습 상담사 2기 활동 시작
- 05.21. 누구나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신청 모집
- 05.22. 누구나학습마을 학습코디네이터 모집
- 05.29. 2013 수원교사 인문학 아카데미 2기 시작
- 06.01. 평생학습아카이브 '와' 홈페이지 및 '누구나학교' 홈페이지 개설
- 06.07. 2013년 수원 학부모 아카데미 시작
- 06.08. 2013년 필우 공원에서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다 개최
- 06.18. 1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06.28. 공동체 영화상영 (워렌두넷)
- 07.01. 2013년 여름학기(7~8월) 개강 (88개 강좌)
- 07.01. 도요새책방 특별 전시전 (나에게 맞는 인문사회과학 도서는?)
- 07.05. 수원시민 인문대학 3기 수료식
- 07.09. 누구나학습마을 관계자 간담회 진행
- 07.11. 누구나학습마을 만들기 선정 마을 발표
- 07.17. 누구나학습마을 학습코디네이터 선정
- 07.19. 누구나학습마을 학습코디네이터 활동 시작
- 07.25. 고등학생 봉사프로그램 누구나쌈 2기 시작
- 08.20. 수원SDS 협동조합 프로그램 시작
- 08.24. 누구나학습마을 (능실마을) 여는마당 개최
- 08.26. 누구나학습마을 (화서1동) 협약식 및 여는마당 개최

2012

시스템 구축 및 차별화된 사업 셋팅

- 08.28. 누구나학습마을 (능실마을) 협약식 개최
- 08.29. 누구나학습마을 (매탄4동) 협약식 및 여는마당 개최
- 09.02. 2013년 2학기(9~12월) 개강 (129개 강좌)
- 09.04. 수원시민 인문대학 4기 시작 (9개 강좌)
- 09.06. 도요새책방 시사토크 시작
- 09.09. 생태교통 2013년 페스티벌 참여
- 09.11. 도요새책방 도시생활자 프로그램 시작
- 09.13. 2013년 수원시평생학습축제 참여
- 09.28. 지역기반 공정여행 프로그램 길 위의 학교 시작
- 10.02. 2013년 수원교사 인문학 아카데미 3기 시작
- 10.10. 인문사회학 세미나 시작
- 10.17.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특별상 수상
- 10.28. 학습관 누구나숲 조성
- 11.04. 문화기획 워크숍 시작
- 11.07. 누구나학습마을 (조원1동) 협약식 및 여는마당 개최
- 12.06. 수원시민 인문대학 4기 수료식
- 12.12. 커뮤니티댄스 발표회
- 12.19. 문화예술학교 발표회
- 12.19. 2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01.03. 2012년 겨울학기(1~2월) 개강(29개 강좌)
- 01.10. 청소년인문학 시작
- 02.20. 2012년 명사초청특강 시작
- 02.22. 2012년 담쟁이 문화살롱 프로그램 시작
- 02.27. 직원 워크숍
- 02.29. 2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03.05. 2012년 1학기(3~6월) 개강(81개 강좌)
- 03.08. 학습관 업무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축
- 03.09. 수원 재무관리사양성사업 협약 체결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 03.10. 청소년 토요교실 시작
- 03.14. 수원평생학습 동향리포트 '와' 창간호 발간
- 03.22. 수원시민 인문대학 협약 체결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 03.27. 수원모금전문가학교 시작
- 04.03. 수원재무관리사양성과정 시작
- 04.06. 1기 수원시민 인문대학 시작(10개강좌)
- 04.07. 어린이 토요교실 시작(경제교실, 만화교실)
- 04.16. 누구나학교 협약 체결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 04.19. 수원 평생학습 실무자 네트워크 '와글와글포럼' 개최

2013



2012





- 04.21. 도요새책방 개관식 및 개관기념 특강(박원순 서울시장)
- 04.23. 도요새책방 상설 전시전 개시(시민개방)
- 04.25. 도요새책방 도서기증 및 관리 협약 (박원순 서울시장)
- 04.28. 길 위의 학교 시작
- 05.07. 강사 간담회 개최
- 05.09. 옥상텃밭 개소식
- 05.13. 해외사례 및 선진기관 벤치마킹(영국)
- 05.17. 누구나학교 1차 네트워크 파티 진행
- 06.01. 2012년 누구나학교 개강(23개 강좌)
- 06.09.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시작
- 06.21. 도요새책방 '시민광장' 인문학 강연 시작
- 06.30. 도요새책방 특별 전시전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 07.02. 2012년 여름학기(7~8월) 개강(51개 강좌)

- 07.18. 수원 평생학습 동향리포트 '와' 10호 발간
- 07.25. 청소년 인문학 시작
- 07.30. UN자문위원 한비아 명사특강
- 08.29.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협력사업 '수원 교사인문학 아카데미'
- 08.30. 도요새책방 관리프로그램 KOLAS III 설치 운영
- 09.01.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수원시평생학습상담사 양성과정 외)
- 09.02. 2012년 2학기(9~12월) 개강(99개 강좌)
- 09.17. 수원시민 인문대학 2기 시작(10개 강좌)
- 12.06. 고3 수험생을 위한 Start Up 20 프로그램 시작
- 12.14. 수원시민 인문대학 2기 수료식
- 12.21. 3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 12.26. 누구나학교 2차 네트워크 파티 진행

2011

개관 및 시범사업 운영

- 04.06. 수원시평생학습관 운영계획수립에 대한 연구용역 준공
- 07.21. 수원시평생학습관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희망제작소)
- 07.22. TFT 구성 및 직원채용 공고
- 09.01. 수원시평생학습관 운영 시작
- 09.21. 학습관 인트라넷 및 블로그 개설
- 09.29. 학습관 문서관리시스템 엔터프라이즈 구축 직원 워크숍 개최
- 10.07. 2011년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시작 (29개 강좌)
- 10.10. 학습상담실 운영 시작
- 10.18. 2011년 수원시평생학습동아리 워크숍 및
- 10.20. 학습동아리실 이용 안내
- 10.21. 자문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10.23. 온라인 평생학습종합정보망(홈페이지) 리뉴얼
- 10.24. 인문학북카페 '카페담쟁이' 운영 시작
- 10.25. 1기 평생학습상담사양성과정 시작
- 10.27.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시작
- 10.28. 수원시평생학습관 개관
- 11.01. 학습관 대관 시작
- 11.02. 2011년 수원시민 인문대학 시작 (최재천, 윤구병, 박용현, 제윤경 등)
- 11.05. 수원 소셜디자인스쿨 시작
- 11.14. 선재스님 명사특강
- 12.06. 2012년 겨울학기(1~2월) 수강생 모집 시작 (29개 강좌)
- 12.08. 영화평론가 유지나 명사특강
- 12.20. 평생교육기관 One-Day Workshop



2011



2013

이렇게 일했습니다

누구나학교 그리고 누구나학습마을

지역협력사업

싱크탱크

인문학 프로그램

인큐베이팅사업

창의적 업무스킬

예술문화 프로그램

도요새책방

반딧불이상담실

누구나학교 그리고 누구나학습마을



누구나학교는 시민제작 일상학습에 대한 방법과 내용으로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으며 크고 작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 누구나학교 홈페이지 구축, 심포지엄 개최, 사례집 발간, 응원단 구성, 누구나학습마을 운영. 그리고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특별상 수상. 시민들의 참여뿐 아니라 벤치마킹하고자 단체들의 방문도 증가하고 있다. 누구나학교는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계속 도전해 나갈 것이다.

누구나학교

옷장을 정리하는 방법, 어린아이에게 용돈지도 하는 방법, 나만의 커피를 만드는 방법, 이웃집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 이런 일상의 소소한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세상을 살다보면 궁금한게 많은데, 이걸 어디서 누구한테 배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면 누구나학교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고, 학생이 될 수 있다.

일상의 소소한 모든 것이 강의 주제가 될 수 있고, 평범한 당신도 누구에게 선생님이 될 수 있다. 금전적인 강사료와 수강료가 아닌 서로간의 배움과 나눔이 수강료가 되고, 이런 나눔의 과정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게 된다. 누구나학교는 말씀씨가 조금 부족한 사람도 강의를 개설할 수 있고,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싶어서 강의를 개설 할 수도 있다. 종교, 정치, 영리 등의 목적 외에는 시민들이 개설하는 강의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012년 6월, 27개의 강의를 시작으로 2013년 12월까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강의가 305개(누계691개)가 진행되었다.

누구나학교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특별상' 수상

시민주도 평생학습, 누구나학교가 제1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사업부문에서 '특별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해 평생학습 각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것으로 수원시평생학습관이 개관하지 2년 만에 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어린 학생도 선생님으로서 참여하고, 전문가도 학습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순수한 주민 참여 모형으로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업 사례" 라는 심사평처럼 즐거운 일상의 배움이 어디서나 열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펼 것이다.



어디서나 열리는 누구나학교 & 오프너

누구나학교가 궁금하고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가 병뚜껑을 시원하게 열어주듯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누구나학교 오프너'이다. 학습관과 오프너는 누구나학교를 열고 싶은 단체, 기관, 모임 등에 찾아가 어디서나 누구나학교가 열릴 수 있도록 <누구나학교 오픈파티>를 연다.

오픈파티에서는 누구나학교를 소개하고 서로의 경험과 재능을 나누는 워크숍(LETS/Local Energy Training System기법활용)이 진행된다. 2013년에는 4명의 누구나학교 오프너가 학습관의 청소년 프로그램인 <누구나쌤 2기, 3기>를 진행하여 '청소년이 여는 누구나학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버드내노인복지관 등의 수원지역은 물론 여주시청, 고양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누구나학교를 알리는 활동을 전국단위로 펼쳐나갔다. 오프너는 2014년에 보다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통하여 시민주도 평생학습의 즐거움, 참여하는 학습의 유쾌한 만남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전문 모더레이터로 한층 성장해나갈 것이며 이들을 통해 '어디서나 열리는 누구나학교'는 더 널리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누구나 숲

'누구에게나 자랑하고픈 자랑스런 누구나학교, 나의 작은 삶의 지혜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유용한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두런두런 어울려서 얘기하며 배워요...' 학습관을 처음 방문하면 가장 제일 먼저 만나는 공간 '누구나 숲'을 지날 때면, 누구나학교에서 열린 강의, 응원메시지, 강의를 연 사람들 등 이웃들의 재미난 이야기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속삭이고 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한 에너지로 누구나 숲은 앞으로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누구나쌤

방학이 되면 고등학생들을 위한 <누구나쌤>이 열린다. 즉석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밖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으며, 누구나쌤에 참여했던 몇몇의 학생들은 누구나학교의 정식 강사가 되기도 했다. '민경이와 함께하는 미술사 여행', '예비기자 현주랑 함께하는 어린이NIE', '예비국어쌤과 함께 꺼삐딴리 읽고 생각나누기' 등 선생님 이 된 학생들은 강의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밤을 새워도 재미있다고 말한다. 앞으로도 누구나쌤을 통해 나눔과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비전을 찾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누구나학습마을은 <2013년도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사업으로
수원시와 경기도 재원으로 운영되며, 수원시평생학습관이 함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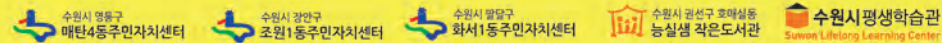
매탄4동 조원1동 화서1동 호매실동
능 실

누구나학습마을

마을에서 이웃들과 어울리며 배우는 누구나학습마을이 시작됩니다!

- 마을 주민 누구나 강의를 열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웃들에게 필요한 모든 주제가 강의가 됩니다.
- 이웃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모임, 동아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 마을 어디서나 열릴 수 있습니다.
- 강의료와 수강료가 따로 없습니다. • 연중 수시로 운영됩니다.

누구나학습마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참여하는지 궁금하다면?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세요.



매탄4동 누구나 학습마을

매탄4동 주민자치센터가
함께 합니다.
TEL 031-228-8673
[http://sandraemi.or.kr\(산드레미\)](http://sandraemi.or.kr(산드레미))

조원1동 누구나 학습마을

조원1동 주민자치센터가
함께 합니다.
TEL 031-228-5861
Daum cafe [조원1동 주민자치센터](#) [문의](#)

화서1동 누구나 학습마을

화서1동 주민자치센터가
함께 합니다.
TEL 031-228-7870
Daum cafe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문의](#)

호매실동 능 실 누구나 학습마을

호매실동 능실마을
능실생 작은도서관이 함께 합니다.
TEL 031-227-1714
Daum cafe [능실 누구나학습마을](#) [문의](#)

※ 2013년에는 매탄4동 주민자치센터, 조원1동 주민자치센터,
화서1동 주민자치센터, 호매실동 능실마을 능실생 작은도서관과
함께 합니다.



마을에서 이웃들과 어울리며 배우는 '누구나학습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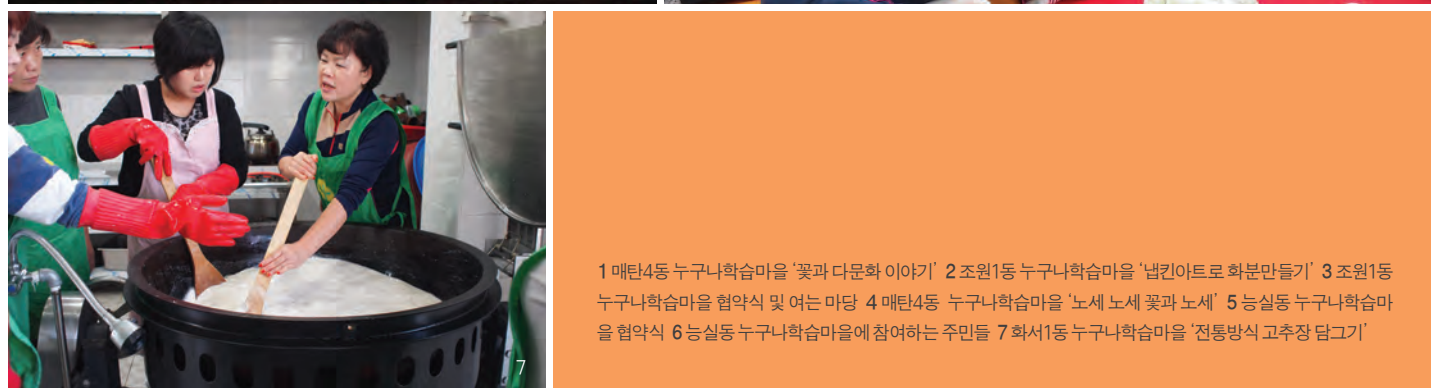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시민주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누구나학교를 올해 마을로 확장했다. 지식, 재능, 경험,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은 누구나 강의를 열고 배우의 기회를 얻고 싶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누구나학교를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지역단체 등 마을에서 실현하는 프로젝트인 셈이다.

누구나학습마을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진행되는 3년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을 신청한 곳 중 4개의 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맺고, 마을의 주민을 만나고 강의를 개설하도록 돕는 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각 마을에 배치하였다.

학력, 나이, 직업, 자격증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비용의 부담 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누구나학교의 운영원칙에 따라 주민 스스로 마을 안에서 필요한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는 누구나학습마을은 마을 안에서 이웃과 삶을 소통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학습공동체이다. 주민이 중심이 되고, 이웃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이야기가 꽃피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누구나학습마을은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할 예정이다.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누구나학습마을이 마을에 잘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학습마을 운영에 관한 실무와 방법론을 배운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1차년도에는 4명의 학습마을 코디네이터와 1명의 지원센터 코디네이터를 선발하여 마을 사업에 관한 역할과 자세를 배우고, 마을공동체 탐방 등 트레이닝 과정을 가졌다. 이렇게 양성된 코디네이터는 각 마을에 배치되어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파악하고 학습 관련 지역자원을 연계하였다. 또한 주민이 가진 지식과 재능을 찾아내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배움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도록 세심히 돕고 있다.



1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꽃과 다문화 이야기' 2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냅킨아트로 화분만들기' 3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협약식 및 여는마당 4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노세 노세 꽃과 노세' 5 능실동 누구나학습마을 협약식 6 능실동 누구나학습마을에 참여하는 주민들 7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전통방식 고추장 담그기'

**매탄4동
누구나학습마을**

마을의 어르신들, 다문화여성 등과 함께하는 강좌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노인정 어르신들 대상으로 꽃꽂이, 라인댄스 등의 강좌를 열어 마을 어르신들의 재능과 지혜를 끌어내기 위해 눈맞춤하고 있으며, 다문화여성들과 함께 추석에 송편을 빚고 꽃꽂이를 배우며 주민 스스로 마을살이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다. 또한 동네 부녀회장의 떡 만들기, 동네 커피숍에서 배우는 커피 내리기 등 마을 주민들의 재능과 마을 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강좌들을 진행하고 있다.

**조원1동
누구나학습마을**

조원동시장 한 편에는 '마을을 가꾸는 돈가스 나눔터, 마돈나 돈가스' 라는 가게가 있다. 그 가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압화카드 만들기, 풍선아트, 냅킨 아트, 수세미 뜨기 등 다양한 수업들이 열리고 있다. 앞으로는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등에서도 이웃의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예정이며, 조금 더 쉽게 이웃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배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고자 한다.

**화서1동
누구나학습마을**

주민자치위원회, 화서신용협동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다문화도서관, 영광문고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 마중물, 푸른숲(아)문화공간추진위 9개의 단체가 누구나학습마을 운영위원회로 참여해, 협력기관으로서 누구나학습마을을 함께 꾸려가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마을의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주민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강좌를 통해 마을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터전에 일상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발걸음은 오늘도 계속된다.

**능실마을
누구나학습마을**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위의 세 마을과 달리 능실마을은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중심이 된 학습마을이다. 중학생이 아이들에게 동요를 가르쳐 주고, 고등학생이 태권도를 가르쳐 주고, 평범한 주부가 메이크업을 강의하고, 이웃집 아빠가 기타 연주를 가르쳐주는 등 이웃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앞으로 마을의 숨은 재원들을 더 많이 발굴해내어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다양한 소재로 강좌를 열도록 할 예정이다. 삭막한 아파트 문을 열게 하는 교류의 장으로서 누구나학습마을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역협력사업

실무자 포럼, 공동체 영화상영, 공원캠페인, 소외지역 교육지원 등 지역단체들과의 협력사업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해 나갔다.

찾아가는 학교

교육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찾아가는 학교'가 2013년에는 가정경제를 튼실히하고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소비습관을 길러주는 경제교실 <똑똑 경제 탄탄미래>를 진행했다. 수원재무관리양성과정(2012) 수료생들로 구성된 '라운 경제교육협동조합'의 경제강사들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초등학교, 도서관, 지역 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30개 기관을 찾아가다. 특히 초등학교(중앙기독교초, 매탄초, 능실초, 반석초, 한울초 등)에서는 경제교과를 시작하는 4학년 전체 학급에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경제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강좌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강사와 공유하는 사후협의회를 통하여 교육내용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찾아가는 학교는 2014년에 경제교육, 문화예술교육, 여행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화할 것이다.



커뮤니티 댄스

커뮤니티 댄스란 무용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춤을 매개로 자신의 삶과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통의 가치를 찾아가는 창작 작업을 의미한다. 커뮤니티 댄스팀 A-ha 안무가들과 함께 작업을 진행했으며, 총 3팀(새벽빛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연무동 아랍터&가로세로, 호매실동 능실마을)이 16주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12월에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춤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커뮤니티 댄스 발표 공연을 가졌다.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적 혜택을 제공하고 예술을 통해 지역공동체성을 발견하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

공동체 영화상영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2013년엔 협동조합에 대한 열기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았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협동조합주관을 맞아, 웃고 감동하며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을 이해하게 한다는 <위 캔 두 댓 WE CAN DO THAT!>을 2013년 6월 25일(화)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총 두 차례 학습관 대강당에서 상영하였다. <위 캔 두 댓>은 '공동체 상영' 형식으로 배급되었는데, 이는 거대자본이 독점하고 있는 영화 제작, 배급시장의 한 편에서 상영관을 얻지 못한 다양한 영화들을 신청, 대어를 통해 함께 보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이 상영회는 수원지역 사회적 경제, 정신장애인 당사자 조직 및

기관 등 공동영화 상영을 원하는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많은 조합원, 회원, 수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수원지역 협동조합 및 경기 복지시민연대, (주)우리동네, 마음샘 정신자활센터, 정신건강공동체 여럿이함께, 장애 우인권문제연구소 경기지소 등 11여개 단체와 함께 했다.



수원평생학습한마당 필수

시민들과 지역단체가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공동행사 <2013 필수, 공원에서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다>가 6월 5일 만석공원에서 열렸다.

만석공원의 파라솔 아래서 '양훈도 논설위원이 읽어주는 시의 맛', '역사학자 김준혁의 만석공원투어', '교육예술가 손채수의 집이야기', '동물애호가 신미라의 애견 에티켓', '폐현수막 장미꽃 만들기', '우쿨렐레 한국 연주 완성하기' 등 응원단과 시민들이 여는 즐거운 배움터가 열렸다. 아이들이 함께한 놀이터에서는 비석치기, 널뛰기, 협동제기차기 등이 신나게 펼쳐졌고 즉석에서 열린 수원여고 학생들의 '손마사지' 강좌는 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여름날 피곤함을 말끔히 씻어주었다.

또 콩도넛, 컵빙수 등의 풍성한 먹거리와 '누구나학교 응원 포토존', 스탬프를 찍어 선물도 나누는 이벤트도 함께했다.

이 행사는 누구나학교 응원단(단장 양훈도)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교육분과(무봉종합사회복지관, 수원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수원체육문화센터, 수원탁틴내일, 수원 YMCA, 수원YWCA, 영통종합사회복지관)소속 7개 기관과 학습관이 공동주최하고 슬기샘어린이도서관, 수원지기학교, 수원시설버인력뱅크, 수원시니어클럽, 수원팻플룻오키나강사협회가 협력단체로 참여하였다.



와글와글포럼

와글와글포럼은 같은 지역에 있지만 따로 존재하던 평생교육기관의 실무자가 함께 현장을 찾아다니며 보고 배우며 토론하는 만남의 장이다. 2013년 3월부터 2달에 한번씩 5차례 만나면서 학원법 개정과정과 평생교육법의 연계성을 논의해보고, 교육기획의 다양화를 위한 경험을 갖기 위해 '논밭예술학교', '협동조합 이웃' 등을 탐방하였다. 2014년에도 와글와글포럼은 추진단(단장: 이성엽 아주대 교수)을 중심으로 교육실무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해결해 가며 성장하는 만남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평생학습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내는 촘촘한 어망 같은 수원시 평생학습의 네트워크가 와글와글포럼을 통해 만들어 질 것이라 믿는다.





시민이 만드는 일상의 학습, 교육의 경계를 허물다



싱크탱크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크게 4가지 사업을 진행하였다. 심포지엄 개최, 사례집 발간, 동향리포터 발행, 평생학습 정보 포털 구축. 각 사업들은 서로 분절되어 있지 않다.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를 높였고, 타 기관이나 사업, 프로그램 등과 유기적으로 작용하며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단체, 지역,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사업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심포지엄 『시민제작 일상학습』

2013년 4월 25일에 진행된 수원시평생학습관 2013 심포지엄 <시민제작 일상학습 : 시민의 만드는 일상의 학습, 교육의 경계를 허물다>는 국내에 조금씩 퍼지고 있는 '시민주도 평생학습'을 미래 평생학습의 주요 이슈로 선정하고, 시민참여를 넘어서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나가는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모아 소개하였다. 또한 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시민들의 힘에 대한 시대적, 이론적 고찰을 통해 앞으로 평생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 심포지엄은 지자체 단위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한 심포지엄 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330여명 이상의 관련기관 실무자 및 시민

들이 참여하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를 통해 충북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민주도 평생학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흩어져 있던 이슈를 모아내고 환기시킴으로서 평생학습계에 시민주도 평생학습의 바람을 일으키며,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생산한 이슈와 내용들이 수원지역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례집 『교육의 경계를 허물다』

시민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평생학습의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조사 연구하여 『교육의 경계를 허물다』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본 사례집은 전체 4개 카테고리(①시민강사의 시대,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 ②협동의 시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의 장 ③마을의 시대, 삶의 현장에서 배운다 ④대중지성의 시대, 대학의 경계를 허문다), 총 16개 사례를 모아놓았다. 마을사람들이 만드는 학습부터 지식을 공유하는 온라인 오픈소스 사이트에 이르는 사례까지 다양한 조직과 형식,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 평생학습 현장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를 한 권의 책으로 모아 내고 전국의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도시에 배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생학습아카이브'와 (wa.suwonedu.org)에 게시함으로써 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원평생학습 동향리포트 와

2012년 3월 14일 창간을 시작으로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이하 동향리포트 와)는 2013년에도 꾸준히 발행되어 올해 총 26회, 제47호까지 발행되었다. 격주 수요일마다 발행하고 있는 동향리포트 와는 평생학습 관계자, 시민사회 단체 실무자, 교육전문가 등 교육 및 기타 관련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구독하고 있다. 메일링 신청이나 정보알림 신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3년 12월 현재 구독자는 총 6,628명으로 2012년 12월 구독자 4,574명보다 2,054명이 증가했다.

동향리포트 와는 관련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전문적이고 현장 밀착적인 평생교육 매체를 지향한다. '평생학습 초점' 코너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들의 연재기사로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야기를 생산하였으며, '혁신·교육·思考' 코너를 통해 혁신적인 해외사례를 소개하면서 평생학습 및 교육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접근했다. 2013년 하반기부터는 평생교육 학자 인터뷰를 통해 학문적이면서도 다층적인 평생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학자와 현장에 있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다. 또한 '기관탐방' 코너를 통해 수원 및 국내 교육 관련 단체들



을 소개하고 네트워킹하고자 노력하였고, 수원 및 국내 평생학습 동향 링크를 통해 새롭고 의미 있는 교육이나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했다.

평생학습 아카이브 와



평생학습기사



인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민승 교수 "평생교육의 진보적 가능성 찾기" 평생학습 관련 학계 인터뷰 - 정민승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 관련 학계 인터뷰 - 정민승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평생교육의 진보적 가능성 찾기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연간 400~5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평생학습소식

교육	행사	세미나	공모
	창작면허프로젝트 <소셜플레이...>		2013-12-17
	[말랑말랑 시사토크] 국민연금 그...		2013-11-20
	글로벌시대 세계사이야기 "...		2013-11-20
	[자녀와 함께 꿈따라 길찾기 교육...		2013-11-20
	저자와의 만남 '누가 내 머릿속에...		2013-11-20
	"영상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		2013-11-20
	제8회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		2013-11-20
	제2기 시니어학한경제아카데미		2013-11-20

평생학습자료

문서자료DB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013-09-25
문서자료DB	시민주도 평생학습 사례집 『교육의 경계를 허물다』	2013-06-11

평생학습아카이브 와

평생학습아카이브 와(wa.suwonedu.org, 이하 아카이브 와)는 평생학습 관련 자료, 이슈, 기사, 정보 등이 저장되거나 흩어져 있지 않고 한 공간에 모여 있음으로써 자료의 가치를 높이고, 양질의 자료를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웹사이트이다. 동향리포트 와를 통해 생산된 정보뿐만 아니라 평생학습도시,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등의 DB 및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나 문서자료, 교육기관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행사, 공모전 등을 모아 놓았다.

2013년 6월에 정식 오픈한 아카이브 와는 2013년 12월 30일 현재까지 총 77,015명이 순방문하였으며, 전체 페이지뷰 수는 1,464,604건이다. 특히 오픈 이후 매월 지속적으로 방문자 수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활용하는 사이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아카이브 와는 다양한 필진 및 시민기자들과 함께 더 세분화된 카테고리화 전문적이면서 유용한 정보를 집적해나감으로써 평생교육계의 전문 매체로서 기능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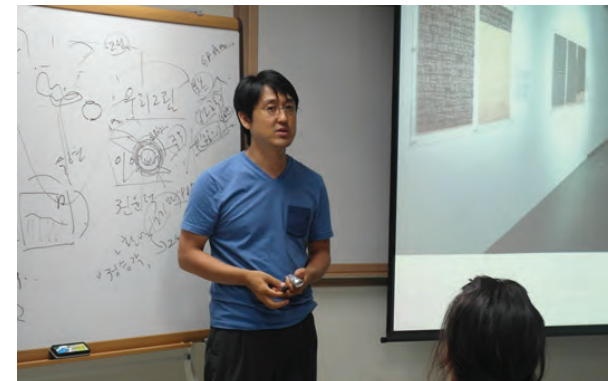
수원시민 인문대학

수원시민 인문대학은 일회적 대형 강의 형태를 지양하고, 긴 호흡을 가진 인문학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인문학의 본래적 성격을 회복한다는 취지로 2012년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폭넓은 인문학적 사고와 통찰력을 갖춘 시민교육의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13년 수원시민 인문대학 3, 4기는 동서양 철학, 역사, 문학 등 다양한 주제의 19개 강좌가 각 12주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성찰적 삶의 자세를 일깨우고 인문학 실천을 지향하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와 협약을 맺고 대학의 지적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인간으로서 삶의 의미를 고찰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공부하고 교류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회사원, 주부, 교사, 학생, 공무원, 은퇴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했고 여름, 겨울에 두 번의 수료식을 통해 186명이 수료하였다.



인문학 프로그램

대상별, 수준별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회성, 행사성으로 소비되는 인문학 강좌들과 차별화를 만들어냈다.



예술인문학

여름, 겨울 학기에는 인문학으로 예술 들여다보기 시리즈가 운영되고 있다. 2013년 7월 <미술관 읽어주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미술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좌가 진행되었다. 문화감수성 증진과 성찰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수원지역 인근 미술관 박물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인문학세미나

인문학세미나는 다양한 인문학적 의제 및 학습자 군을 발굴하고자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이다. 형식적으로 강의 중심이 아닌 특강 및 토론 등 다양한 형식을 결합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2013년 가을학기에는 <놀이, 대안적 삶을 위한 탐색>이라는 제목으로 인문사회학 세미나가 열렸다. 노동중심의 사회에서 피로를 느끼는 사람, 시장경제의 전지전능함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안적 삶을 궁리하는 터전으로 구상되었다. 여기서 '놀이 하는 삶'이란 시장경제에 의존하지 않고 협동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찾는 삶을 말한다. 8주차에 걸쳐 노동, 놀이, 삶의 속도, 작은 기술, 사회적 커뮤니티, 여러 실험적 경험담 등의 다양한 장면들을 통해 '놀이하는 삶'을 탐색하였다. 참여자들이 20~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했으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뜻깊은 경험을 나눌 수 있었다.

인문학 학습모임

수원시민 인문대학, 인문학세미나의 후속 모임으로 독서모임, 토론모임 등 인문학을 매개로 한 관계 맺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문대학 3기 후속 모임으로 결성된 '인문대학 독서모임'이 7월부터 만남을 갖고 있다. 철학교전, 역사서적 등을 함께 읽고 토론하고 발제하며 진행하고 있다. 일상적 친교 모임도 함께 하며 인문학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인문사회학 세미나 팀의 경우에도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경험을 나누는 자발적 모임을 꾸려 가고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을 구상 중이다.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인문학 학습모임을 지원할 예정이다.



명사특강

- | | | | |
|-----|---|-----|---|
| 1월 | 
손미나 <u>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u> | 2월 | 
이근철 <u>효과적인 영어학습법</u> |
| 3월 | 
구성애 <u>아름다운 우리들의 성</u> | 4월 | 
박원순 <u>책 읽는 마을이 희망이다</u> |
| 5월 | 
김남희 <u>길 위를 걸으며 꿈을 만나다</u> | 6월 | 
윤여준 <u>밥그릇과 민주주의</u> |
| 7월 | 
이미도 <u>픽사에서 창조적 상상력을 훑쳐라</u> | 8월 | 
표창원 <u>한국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u> |
| 9월 | 
박재동 <u>만화로 돌아보는 나의 삶,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다</u> | 10월 | 
정재승 <u>창의적인 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나</u> |
| 11월 | 
박경철 <u>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는 지혜</u> | | |



**교사
인문학아카데미**

수원의 교사들이 문학, 철학, 역사, 문화예술의 다양한 영역의 인문학자들을 폭넓게 만나 성찰하고 공부하는 시간, 교사 인문학아카데미가 2012년(1기 운영)에 이어서 2013년에는 2기, 3기가 운영되었다. 상반기에 열린 2기는 고병헌 교수님

의 강의를 시작으로 소설가 성석제, 정호스님, 박재희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장 등으로 이어져 7월까지 8차 진행되었다.

10월에 시작한 3기는 '교사, 성찰하고 실천하는 인문학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경희대 후마니타스 도정일 대학장의 강의로 시작하여 학교란 무엇인가의 정성욱PD, 하승수 변호사의 인권이야기, 신정근 교수와 고전의 지혜를 만나고, 진정한 행복한 사회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의 특강을 끝으로 8차의 연수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학부모
인문학아카데미**

수원교육지원청과 수원시평생학습관이 공동 주최한 '2013 수원시 학부모인문학아카데미' 는 수원시 학부모회 중심학교 학부모 임원 76명을 대상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창의지성교육과 다섯 개의 키워드로 보는 삶과 삶의 강의를 진행했다. 배움의 기쁨과 삶의 통찰을 주는 '삶' 이란 무엇인지, 타자와 소통하는 '가르침-배움' 의 관계는 어떻게 가능하지, '좋은 교육' 이 아니라 '좋은 삶' 은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인지, 근대성과 근대교육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했던 스승들의 사유를 만나는 이

번 학부모인문학아카데미에 많은 학부모들은 공감했고 새로운 학교 모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길 위의 학교

길 위의 학교는 길 위를 걸으며 단순히 보고 듣는 장소 이동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생각의 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만남을 통해 자신을 바꾸고 지역을 이해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긍정의 에너지를 얻는 탐방 프로그램이다.

김준혁교수의 '길 위에서 수원을 만나다' 강연으로 시작하여 서호, 칠보산 습지, 광고산, 지동마을, 화성 안 문화거리 등 수원 구석구석을 찾아다녔다. 수원의 역사, 문화, 마을, 생태, 사람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경험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던 상상하고 배우는 지역기반 공정여행 그 자체였다.



전문가 및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평생학습관 특성에 맞는 일자리연계(사회활동, 일자리 창출 등) 프로그램이 증가했으며,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연계를 위한 인큐베이팅센터 99°C 공간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구축하였다.



학습관 3층에 '인큐베이팅센터 99°C' 공간 마련

'인큐베이팅 센터 99°C' 네이밍에는 새로운 길로의 전환을 위해 단련하는 곳, 1°C만 더 끓으면 액체에서 기체로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내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습관 교육프로그램(지역리더 및 일자리연계과정) 수료생들이 자발적인 일자리창출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모색하는 Co-working 공간인 인큐베이팅센터 99°C는 3월 19일에 오픈하였다. 99°C에는 재무관리사 양성과정을 마친 '라운 경제교육 협동조합' 과 공정여행가 양성과정을 마친 '마이플래닛' 이 입주하여 1°C를 향한 담금질을 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분기별 회의를 갖고 학습관과 입주 단체간의 공유와 네트워킹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며, 지역에서 새롭고 의미있는 일을 모색하는 더 많은 팀들이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다.

재무관리사 인큐베이팅

2012년 수원시재무관리사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이 즐거운 경제교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라운 경제교육 협동조합' 을 구성하여 2013년 3월 인큐베이팅센터에 입주하면서 경제교육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하였다. 청소년경제교육연구소(소장 민인엽)의 전문 강사과정을 마쳤으며, '수원시우수동아리 공모 선정', '한살림 경기남부 지역활성화 기금사업 공모선정', '희망제작소 시니어 드림페스티벌 선정', '수원시 사회적기업 창업 프로젝트 선정' 등을 통해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찾아가는 학교 <똑똑경제 탄탄미래>를 운영하여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알려나갔으며 수원지역에서는 30여개 기관과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인천, 안양, 용인, 화성, 의왕, 서울에서도 10여개 기관에서 경제교실을 운영하였다. 10월부터는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수원시금융복지상담센터에 2명의 재무관리사가 근무하며 저소득층 부채상담과 재무관리를 진행하였다. 2013년에는 12월에는 협동조합 설립인증을 받아 새로운 조직기반에서 신규 경제강사를 양성하고 전국단위 경제교육 전문가들의 협동조합으로 성장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여행가 양성 및 인큐베이팅

공정여행가 양성과정은 특정 여행상품이 아니라 여행 방식이며 문화인 공정여행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에 기반한 공정여행 창업을 유도하여 인큐베이팅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여행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여행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지역의 시민활동가와 은퇴자, 교사, 자유여행가, 의료관광 통역사, 화성길라잡이, 시

민기자, 주부 등 42명이 총 60시간의 교육과 실습에 참여했다. 과정이수 후 공정여행사 '두 트래블(Do Travel)' 이 창업하였고, 동아리로는 '길 위의 풍경' 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양성과정에서 우수한 여행상품을 기획한 팀에게 인큐베이팅센터에 입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중 한 팀인 공정여행 기획자 협동조합 '마이플래닛(My Planet)' 이 공정여행 기획자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평생학습상담사 양성 및 인큐베이팅

2011년 학습관 개관초기부터 수원의 평생학습 시설 및 프로그램 안내, 학습자들의 평생학습설계 및 상담 등을 위한 '평생학습상담사' 를 양성하고 있다. 1기 상담사들은 학습관의 홍보대사 역할과 반딧불이상상담실을 수강접수처가 아닌 학습상담실로 자리매김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13년에 양성된 2기 평생학습상담사들과 1기 상담사들은 멘토와 멘티로 만나 '평생학습상담사 업무 매뉴얼화' 작업을 하면서 평생학습상담사의 영역을 구축하고 체계를 갖추어나가고

있다. 명사특강을 비롯한 프로그램 보조운영자, 누구나학교 오픈너 그리고 생태교통 수원 2013, 수원시 평생학습축제 등의 행사부스를 운영하였고 수원지역의 도서관에서 '이동상담실' 을 운영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지난 3년 간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강좌 모니터링 요원, 누구나학교 참여, 누구나학습마을 지원 등으로 각자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그 활동영역을 더 넓혀가려 한다.

수원 SDS '협동조합을 디자인하다'

수원 SDS(Social Designer School) 2기 <협동조합을 디자인하다>는 지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소셜 미션)를 사업 아이디어(비즈니스 모델)로 발굴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수원시민 30명을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9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협동조합 전문가를 초빙해 협동조합 기

초교육부터 사례위주 현장탐방(수원, 원주), 미션과 비즈니스 모델 수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매칭, 사후 실행을 위한 인큐베이팅센터 입주 지원까지 협동조합 창업준비 과정으로 운영했다. 교육 이수 후 영유아 공동 보육을 위한 협동조합을 설립중이며, 그외 노인생협, 여행사, 청소년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학습모임을 갖고 있다.





창의적 업무스킬

업무 효율을 높이는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제시하여 일상 업무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기획된 강의로 IT툴 사용법부터 전문가의 사례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나볼 수 있었다.



오픈소스 IT툴 워크샵

비영리단체나 소기업에서도 비용의 부담 없이 쉽게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오픈소스 IT툴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용법은 어렵지 않으나 존재를 몰라 사용하지 못했던 각종 온라인서비스들을 소개하는 강의인 <우리조직의 소통능력을 높여줄 온라인서비스>부터 실제 컴퓨터와 스마트폰 상에서 실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피피티보다 잘나가는 프레지>, <에버노트로 스마트워크&스마트라이프 만들기>, <무료포토샵 김프로 웹포스터 만들기>, <워드프레스로 나만의 웹사이트 만들기> 등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각 분야 전문가의 검증된 커리큘럼을 통해 강의를 수강하는데 그치지 않고 작더라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무 스킬 업 강좌

누구도 속 시원히 가르쳐주지 않는 일상의 업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한 기획으로 <뭔가 다른 행사 기획과 운영>, <카피는 감각이 아니다>, <눈길을 끄는 사무/행사 공간디자인>, <디자인이 알려주는 홍보 인쇄실무 가이드>, <직장인을 위한 나의 첫 책 쓰기> 등의 강의를 통해 실무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전문가와 업체대표들이 본인들이 직접 수행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수강생들과의 질의응답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실무감각을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일반적인 평생기관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실무스킬 강좌로서 독특함을 더해온 '창의적 업무스킬' 과정은 2014년에 '스마트워크 아카데미' 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단기 강좌에서 벗어나 좀 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과정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한 가상공간의 중요성 증대, 글로벌한 산업구조와 노동인력 구조 속에서 의사소통과 협업의 중요성 증대 등 다양한 상황에서 주어진 업무나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복잡한 생활과 작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학교, 문화와 일상생활의 만남을 모색하는 담쟁이 문화살롱, 환경 및 슬로우 라이프 실천을 위한 거북이공방 워크숍,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생활문화 강좌 등 다변화되고 차별화되고 있는 예술·문화 욕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다.

예술 · 문화 프로그램



문화예술학교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과 함께 전문적인 예술교육의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출발한 문화예술학교는 기능과 기법을 배우는 단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 지역과 사람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강좌로 자리매김했다. 배운다는 것에서 느끼는 재미와 활력을 즐기는 드로잉, 뮤지컬, 캘리그래피 교실의 수강생들은 강좌 수강에 그치지 않고 동아리를 꾸려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며 성장하고 있다. 12월 19일에는 담쟁이카페에서 '숨은 어느 날, 황홀한 초대' 라는 발표회 및 전시회를 열어 예술의 아름다움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담쟁이 문화살롱

학습관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간 중 하나는 학습관 1층에 위치한 담쟁이카페가 아닐까 싶다. 학습관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담쟁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도 나누고 책을 읽고 때로는 업무를 보기도 한다. 이 커피향 가득한 사랑방에서 매달 한 번씩 다과와 함께 담쟁이 문화살롱이 열렸다.

2013년 담쟁이 문화살롱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그것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가 되는 지점을 이야기했다.

거북이공방 워크숍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소박하게나마 일상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면, 거북이공방 워크숍의 문을 두드려보길 권한다. <평화가 깃든 밥상>, <친환경 조리도구의 모든 것>에서는 밥상을 통한 친환경을 실천하는 방법을 그리고 <멸종위기 종 동물과 반려동물의 문제에 관심 기울이기>,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가 진행되었다. 나와 자연에 이로운 먹거리를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나눔을 실천하고 반려동물 이야기를 나누며 보낸 공감과 배움의 시간들은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조금씩 이어질 것이다.

막걸리교실, 약초교실 그리고 집 짓기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를 겪으면서 평가절하된 우리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은 <막걸리·전통주교실>에서 실감하게 된다. 인문학의 옷을 입은 막걸리, 전통주와 조우하며, 할머니가 담그시던 그 맛을 살리고자 하는 수강생들로 강의실은 늘 꽉 들어차고 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풀, 열매로 건강한 삶을 이야기하는 <약초교실>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부들뿐 아니라 남성학습자까지 폭넓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0월에 8차로 진행한 <건축가와 손잡고 좋은 집 짓기>는 좋은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하여 나와 가족의 생활패턴을 돌아보고 그것에 맞는 집을 짓는 것, 집에 삶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맞는 집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종종 걸음 치는 작은 발자국 소리, 우다다다 웅성 웅성 형아들의 소란, 하하호호 즐거운 우스갯소리, 학습관이 유난히 시끌벅적해지고 활기가 생기는 날, 바로 토요일이다. 어린이·청소년 토요일 교실은 학교라는 일상에서 벗어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학습을 즐겁고 재미있게 이어가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 만화교실>과 <어린이 머니멘토>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포크기타>가 있다. 또 평일 저녁에는 학령기 이후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장애인청소년들의 자존감 증진과 직업탐색을 위한 <공예교실>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생활문화강좌

지역주민에게 학습을 통한 여가 활용, 삶의 즐거움, 성취감을 제공하기 위해 컴퓨터, 외국어, 음악, 건강·체육, 사진, 글쓰기 등 각 학기 16개 강좌 33개 반을 운영 하였다. 특히 <왕초보 컴퓨터>와 <왕초보 영어>는 배움에 목말랐던 장년층의 뜨거운 학습 열기에 힘입어 반이 계속 늘어나기도 하였다.



도요새책방

시민사회자료관 도요새책방은 인문사회 분야 중심의 도서와 기록물을 수집하여 열람,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전시

인문사회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료들을 전시를 통해 시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중요했던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시대정신 및 사회적 가치를 환기하도록 하였다. 도요새책방 홈페이지에서는 전시된 자료목록, 이미지 등을 볼 수 있다. 상설전시는 <회의와 조율, 정치아카이브展 2012.12~2013.2>, <수집일지, 또 다른 기록물의 탄생 스크랩북 2013.4~7>, <경기기록문화포럼의 활동展 2013.7~ 2013.10>, <가치의 흔적展 2013.10~2014.1>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특별전시로는 <책읽는 마을이야기>, <나에게 맞는 인문사회과학 도서는?>이 진행되었다.

공유의 책장

“항상 ‘왜?’ 를 연발하던 조카를 위해 샀던 책이었습니다. 이젠 그 조카가 다 컸네요. 세상에 대해 한창 호기심을 가질 아이들을 위해 이 책을 공유합니다.” (『I WONDER WHY 시리즈』 책 공유자)
자신의 인생에 지혜가 되었던 책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분을 위하여 마련하였다. 공유의 책장을 통해 책과 책 속에 담긴 의미를 누구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이웃들과 공동체의식도 형성하고 책읽기를 활성화하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말랑말랑 시사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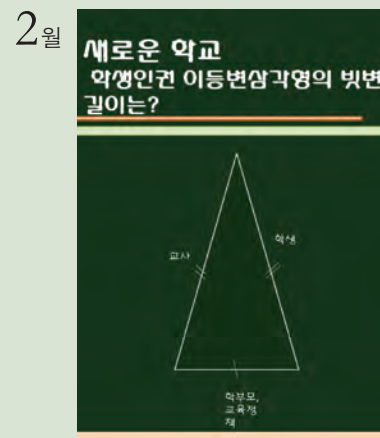
시민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 층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이슈 리뷰 프로그램이다. 궁금했던 시사문제를 자유롭게 풀어내기 위해 진행자로 버거비씨(최용선/수원KYC대표)가 함께하고 있고, 이슈마다 전문가를 이야기손님으로 초대해 더욱 풍성한 시사토크가 만들어 가고 있다. 9월에는 ‘전력수급’을 주제로 이유진 환경운동가와 함께했고 10월에는 사진작가 이시우씨와 ‘NLL과 한반도 평화’를 11월에는 경제전문가 오건호씨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12월에는 이종우박사와 ‘한국근현대사 논쟁’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수원시민들과 함께 정치사회문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도시생활자의 일주일의 변화

자료관이 제안하는 삶의 필수 덕목 3가지(책, 경제, 노동)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자 한 시민참여형 인문사회학 교육프로그램이다. 주체적으로 살길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화된 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인문사회학적 지혜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마을열린극장

독립영화를 통해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문제의식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 또는 철학적 주제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주고,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도요새친구(자원활동가) 및 감독과의 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새로운 학교 - 학생인권 이등변삼각형의 빛변 길이는?
교사와 학생의 대화, 갈등을 통해 인권조례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과 현재 들여다보기



헬프
1960년대 미국사회 속의 인권 갈등 짚어보기



미안해, 고마워
인권과 동물권의 적용관계 파악하기



화려한 휴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 바로알기



할머니는 일학년
할머니와 아이를 통해 본 세대 간의 갈등과 해소 과정 및 가족의 의미 되짚어보기



춤추는 숲
인간의 개발 논리 속 자연환경의 의미와 도시공동체 속의 연대의식 주목하기



인사이드 잠
미국의 금융위기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한계 되짚기



말하는건축가
건축가 정기용의 삶의 가치관과 공공건축의 중요성 알기



어느 날 그 길에서
로드킬 당하는 많은 동물들의 이야기와 인간의 토목건설의 한계성



노인팩트 맨
지구를 지키기 위한 한 환경운동가 가족의 환경보호 실천 활동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좌충우돌 이야기



엔딩 노트
죽음을 앞둔 한 아버지가 만드는 자신만의 버킷리스트 일명 엔딩노트를 준비하며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는 이야기

함께읽기모임

읽기모임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정한 책을 몇 단락씩 돌아가며 읽어 내려가는 모임이다.



철학자의 디자인공부

오늘날 중요하고 논쟁적인 디자인 분야에 대한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고찰을 시도한 책



긍정의 배신

사회비평가인 저자가 긍정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미국의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본 책



핀란드 교육혁명

부패수치는 가장 낮고, 복지에 투자하는 비율이 우리의 두 배 가까이 되는 핀란드 교육의 모든 것에 대해 교육의 단계별로 정리해서 보여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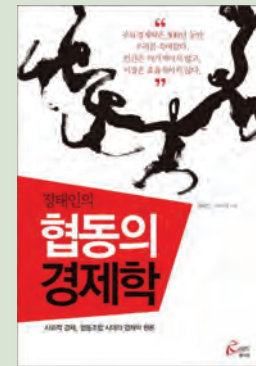
제인 에어

영국 문학에서 최초로 욕망을 다룬 작품으로 평가되면서 오늘날까지도 그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로 맨스 소설



과로사회

장시간 노동을 둘러싼 투쟁과 정치를 분석하며 과로사회를 넘어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책



협동의 경제학

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담 아 시장경제 유일사상을 극복하여 사회적 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등 사회 운용의 원리를 다각적으로 제시한 책



역사비평

그간 우리 사회와 역사에 대한 문제 의식과 그 정신을 담은 역사비평 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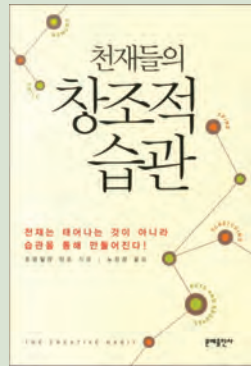
말과 활

'인문주의 정치비평지' 및 '진보교양 잡지'로 현실의 문제에 대한 현황을 짚어볼 수 있는 간행물



책을 읽는 방법

단순히 독서에 들이는 시간의 기준을 넘어, 단 한 권을 읽더라도 책 속에 숨겨진 수수께끼와 비밀을 속속들이 발견하고 즐기라고 주문하며, 그 방법을 꼼꼼하게 제시한 책



천재들의 창조적 습관

천재라고 불린 사람들의 중요습관 중 책임감 습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책



이솝 우화집

우화에서 다루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풍부한 교훈을 느끼게 해주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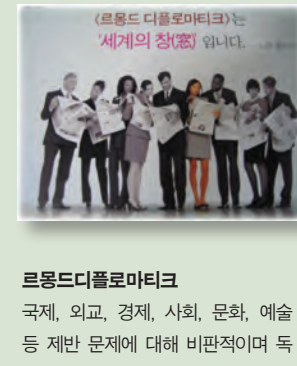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신자유주의의 '돈벌이 경제학'이 아니라 '살림/살이 경제학'이라고 하여 개인, 가족, 지역, 나라, 나아가 세계의 경제를 조직하는 대안적 원리에 대해 설명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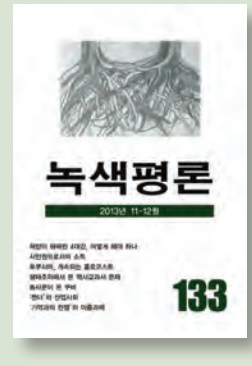
나를 더 사랑하는 법

일상을 좀 더 특별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실천 과제들과 재밌는 사연이 담긴 책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국제,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제반 문제에 대해 비판적이며 독창적인 시각 및 심층 기사를 담고 있는 비평지



녹색평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분열을 치유하고 공생적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사회의 재건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생태의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미래의 대안을 모색하는 격월간 잡지



반딧불이상담실

‘반딧불이상담실’은 어두움에서도 빛을 밝혀 앞을 인도하는 반딧불이처럼 평생학습의 길잡이가 되고자 반딧불이란 이름을 붙였다. 반딧불이상담실은 학습관 강좌 수강신청은 물론 수원의 지역별 평생학습 정보를 모아서 학습자가 근거리에서 원하는 강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재무상담, 취업상담도 운영하며 지렁이 생태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평생학습상담사

반딧불이상담실을 찾을 때면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42시간의 평생학습양성과정프로그램을 마친 평생학습상담사들이다. 평생상담사들은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관을 찾는 학습자들에게 학습자가 원하는 수원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컴퓨터가 서툰 학습자들에게 학습정보검색을 돕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간혹 배우고 싶지만 처음 해보는 과정이라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 교육과정을 차근차근 안내하여 충분한 정보를 갖고 선택하도록 학습상담을 진행한다. 또 영통도서관과 북수원도서관에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평생학습상담사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심화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지렁이생태에 관해서, 2013년엔 카메라와 포토스케이프를 교육 받아 학습상담에 활용했다. 그 밖에도 프로그램 모니터링, 설문조사, 명사특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재무상담 / 취업상담

재무상담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가정재무관리, 보험료 다이어트, 자녀 용돈지도, 건강한 소비습관 등의 상담이 이루어진다. 2012년 재무관리사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전문교육, 트레이닝 과정을 마친 ‘라운 경제교육 협동조합’의 상담사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다. 상담은 누구나 학교 홈페이지 <수요일에 만나는 착한 경제멘토>에서 사전신청할 수 있다. 취업상담은 매주 목요일에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력으로 운영했다. 전문직업상담사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취업에 대한 정보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지렁이상자

반딧불이상담실에는 지구를 살리는 지렁이가 함께 살고 있다. 지렁이 생태교육을 받은 평생학습상담사들은 지렁이의 먹이와 환경을 체크하여 지렁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리하고, 관심있는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지렁이를 체험하는 교육을 진행하거나 분양하기도 한다.



담쟁이카페



cafe
담쟁이

평생학습관 1층에 위치한 담쟁이카페는 차와 음료, 도서와 잡지 비치, 학습작품 전시, 소규모 학습 및 문화공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방문하시면 음악과 차를 즐기며 아늑한 공간에서 900여권의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직업 재활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포그래픽 보는 2013 수원시평생학습관

허브-네트워크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누구나학습마을	4개 마을	212개 프로그램	4,136명 참여
	찾아가는 학교 경제교실 및 커뮤니티댄스	86개 강좌		1,941명 참여
	지역단체연계사업 공동체영화상영 및 수원평생학습한마당 필수	3회 개최	630명 참여	23개 단체 참여
	수원평생학습 네트워크 와글와글포럼	5회 진행		84명 참여
	학습 및 행사를 위한 공간지원			209,214명 (일평균 699명 이용)

평생학습 싱크탱크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26회 발행		6,628명 구독
	평생학습아카이브(웹)	DB 1,086건		600여명 일평균 접속
	시민제작일상학습 심포지엄	1회 개최		373명 참여
	시민주도평생학습 사례집	1권 제작		16개 사례 수록

시민주도 평생학습

	누구나학교 및 누구나쌤	176개 강좌		1,641명 참여
	학습동아리 및 함께읽기모임	98개 모임		3,250명 참여
	인큐베이팅사업	5개 팀(단체)		63명 참여

학기별 교육사업

인문교양 및 문화예술

수원시민인문대학, 인문사회학세미나, 명사특강, 교사인문학, 학부모아카데미, 담쟁이문화살롱, 문화예술학교

61개 강좌 4,686명 참여

지역학

길 위의 학교

6개 강좌 138명 참여

지역리더 및 전문가 양성

평생학습상담사, 누구나학교오피너, 누구나학습마을코디네이터, 공정여행가, 협동조합디자이너(수원SDS), 문화기획워크숍

13개 강좌 219명 참여

업무스킬 향상 과정

김프, 엑셀, 에버노트, 워드프레스, 온라인서비스, 책쓰기, 프레지, 행사공간디자인, 행사기획과 운영, 홍보인쇄실무, 카피라이팅

17개 강좌 317명 참여

시민사회자료관 프로그램

마을열린극장, 시민광장, 시민열전, 시사토크, 도시생활자

26개 강좌 696명 참여

사회통합 및 어린이청소년

영어 및 컴퓨터 기초,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강좌, 청소년 강좌

54개 강좌 916명 참여

생활문화

거북이공방워크숍, 스타일워크숍, 약초 및 막걸리 교실, 집짓기, 외국어, 음악, 건강체육, 사진, 글쓰기

94개 강좌 1,635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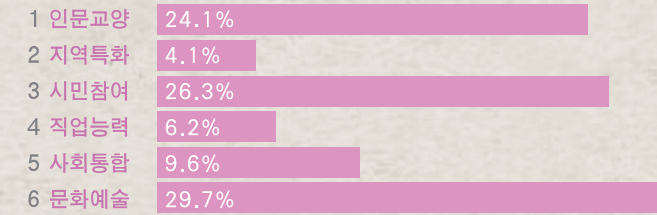


개설강좌 35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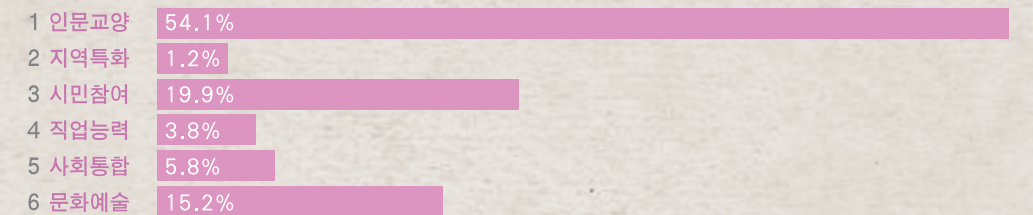


수강인원 10,60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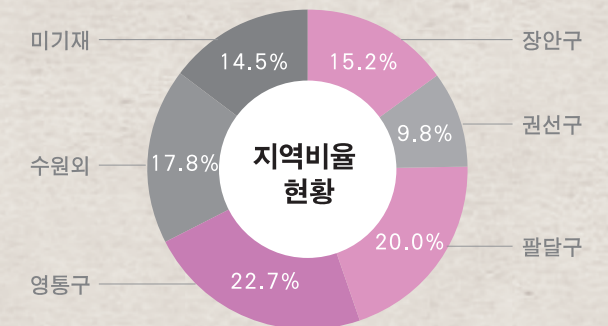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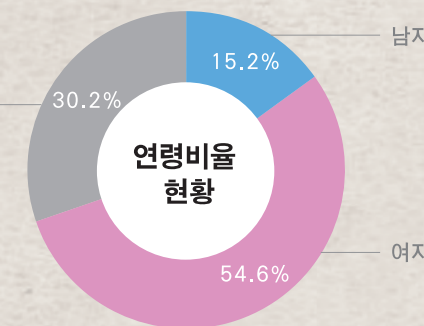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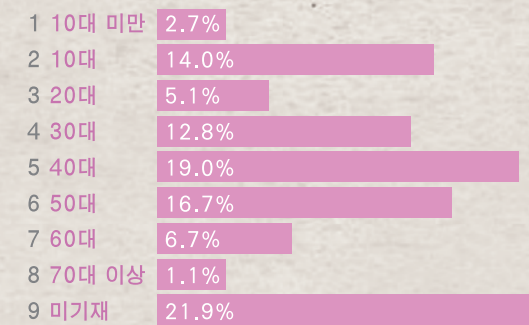
주제영역별 강좌 현황



주제영역별 수강 현황



연령비율 현황



통계로 보는 2013 수원시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현황

개설강좌 현황

구분	강좌 수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개설강좌	46개(13.1%)	90개(25.5%)	88개(24.9%)	129개(36.5%)	353개(100%)

주제영역별 강좌 현황

구분	강좌 수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인문교양	7개(15.2%)	37개(41.1%)	10개(11.4%)	31개(24.0%)	85(24.1%)
지역특화	8개(17.4%)	0개(0.0%)	0개(0.0%)	6개(4.7%)	14개(4.1%)
시민참여	0개(0.0%)	9개(10.0%)	43개(48.9%)	41개(31.8%)	93개(26.3%)
직업능력	0개(0.0%)	7개(7.8%)	4개(4.5%)	11개(8.5%)	22개(6.2%)
사회통합	9개(19.6%)	8개(8.9%)	8개(9.1%)	9개(7.0%)	34개(9.6%)
문화예술	22개(47.8%)	29개(32.2%)	23개(26.1%)	31개(24.0%)	105개(29.7%)
합계	46개(100%)	90개(100%)	88개(100%)	129개(100%)	353개(100%)

운영기간별 강좌 현황

구분	강좌 수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1회	5개(10.9%)	28개(31.1%)	28개(31.8%)	35개(27.1%)	96개(27.2%)
2회~4회 미만	3개(6.6%)	3개(3.2%)	8개(9.2%)	12개(9.3%)	26개(7.4%)
4회~8회 미만	9개(19.6%)	6개(6.7%)	17개(19.3%)	26개(20.2%)	58개(16.4%)
8회~12회 미만	20개(43.5%)	7개(7.8%)	26개(29.5%)	8개(6.2%)	61개(17.3%)
12회~16회 미만	0개(0.0%)	15개(16.7%)	0개(0.0%)	19개(14.7%)	34개(9.6%)
16회~20회 미만	9개(19.6%)	23개(25.6%)	9개(10.2%)	20개(15.5%)	61개(17.3%)
20회 이상	0개(0.0%)	8개(8.9%)	0개(0.0%)	9개(7.0%)	17개(4.8%)
합계	46개(100%)	90개(100%)	88개(100%)	129개(100%)	353개(100%)

수강생 현황

수강인원 현황

구분	수강인원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합계	1,534명(14.4%)	3,399명(32.1%)	2,142명(20.2%)	3,528명(33.3%)	10,603명(100%)

주제영역별 수강 현황

구분	수강인원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인문교양	882명(57.5%)	2,424명(71.3%)	731명(34.1%)	1,695명(48.0%)	5,732명(54.1%)
지역특화	0명(0.0%)	0명(0.0%)	0명(0.0%)	138명(3.9%)	138명(1.2%)
시민참여	133명(8.7%)	233명(6.9%)	838명(39.1%)	905명(25.7%)	2,109명(19.9%)
직업능력	0명(0.0%)	141명(4.1%)	77명(3.7%)	183명(5.2%)	401명(3.8%)
사회통합	164명(10.7%)	143명(4.2%)	146명(6.8%)	163명(4.6%)	616명(5.8%)
문화예술	355명(23.1%)	458명(13.5%)	350명(16.3%)	444명(12.6%)	1,607명(15.2%)
합계	1,534명(100%)	3,399명(100%)	2,142명(100%)	3,528명(100%)	10,603명(100%)

운영기간별 수강 현황

구분	수강인원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1회	863명(56.3%)	1,984명(58.4%)	1,167명(54.5%)	1,663명(47.1%)	5,677명(53.5%)
2회~4회 미만	62명(4.0%)	75명(2.2%)	166명(7.7%)	196명(5.6%)	499명(4.7%)
4회~8회 미만	132명(8.6%)	160명(4.7%)	241명(11.3%)	507명(14.4%)	1,040명(9.8%)
8회~12회 미만	266명(17.3%)	332명(9.8%)	367명(17.1%)	374명(10.6%)	1,339명(12.6%)
12회~16회 미만	0명(0.0%)	296명(8.7%)	0명(0.0%)	276명(7.8%)	572명(5.4%)
16회~20회 미만	211명(13.8%)	361명(10.6%)	201명(9.4%)	305명(8.6%)	1,078명(10.2%)
20회 이상	0명(0.0%)	191명(5.6%)	0명(0.0%)	207명(5.9%)	398명(3.8%)
합계	1,534명(100%)	3,399명(100%)	2,142명(100%)	3,528명(100%)	10,603명(100%)

수강신청방법 현황

구분	수강인원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방문	919명(59.9%)	1,919명(56.5%)	1,633명(76.2%)	2,605명(73.8%)	7,076명(66.7%)
온라인	615명(40.1%)	1,480명(43.5%)	509명(23.8%)	923명(26.2%)	3,527명(33.3%)
합계	1,534명(100%)	3,399명(100%)	2,142명(100%)	3,528명(100%)	10,603명(100%)

남녀비율 현황

구분	수강인원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남자	236명(15.4%)	543명(16.0%)	293명(13.7%)	539명(15.3%)	1,611명(15.2%)
여자	960명(62.6%)	2,088명(61.4%)	968명(45.2%)	1,777명(50.4%)	5,793명(54.6%)
미기재	338명(22.0%)	768명(22.6%)	881명(41.1%)	1,212명(34.4%)	3,199명(30.2%)
합계	1,534명(100%)	3,399명(100%)	2,142명(100%)	3,528명(100%)	10,603명(100%)

연령비율 현황

구분	수강인원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10대 미만	57명(3.7%)	31명(0.9%)	74명(3.5%)	124명(3.5%)	286명(2.7%)
10대	314명(20.5%)	147명(4.3%)	390명(18.2%)	629명(17.8%)	1,480명(14.0%)
20대	113명(7.4%)	172명(5.1%)	76명(3.5%)	178명(5.0%)	539명(5.1%)
30대	192명(12.5%)	502명(14.8%)	250명(11.7%)	408명(11.6%)	1,352명(12.8%)
40대	234명(15.3%)	778명(22.9%)	324명(15.1%)	676명(19.2%)	2,012명(19.0%)
50대	221명(14.4%)	637명(18.7%)	281명(13.1%)	631명(17.9%)	1,770명(16.7%)
60대	97명(6.3%)	232명(6.8%)	121명(5.6%)	265명(7.5%)	715명(6.7%)
70대 이상	16명(1.0%)	45명(1.3%)	18명(0.9%)	48명(1.4%)	127명(1.1%)
미기재	290명(18.9%)	855명(25.2%)	608명(28.4%)	569명(16.1%)	2,322명(21.9%)
합계	1,534명(100%)	3,399명(100%)	2,142명(100%)	3,528명(100%)	10,603명(100%)

지역비율 현황

구분	수강인원				
	1~2월	3~6월	7월~8월	9~12월	계
장안구	287명(18.7%)	554명(16.3%)	255명(11.9%)	518명(14.7%)	1,614명(15.2%)
권선구	142명(9.3%)	380명(11.2%)	179명(8.4%)	332명(9.4%)	1,033명(9.8%)
팔달구	376명(24.5%)	764명(22.5%)	361명(16.9%)	615명(17.4%)	2,116명(20.0%)
영통구	283명(18.4%)	746명(21.9%)	348명(16.2%)	1,034명(29.3%)	2,411명(22.7%)
수원외	165명(10.8%)	436명(12.8%)	493명(23.0%)	794명(22.5%)	1,888명(17.8%)
미기재	281명(18.3%)	519명(15.3%)	506명(23.6%)	235명(6.7%)	1,541명(14.5%)
합계	1,534명(100%)	3,399명(100%)	2,142명(100%)	3,528명(100%)	10,603명(100%)

누구나학교 현황

개설강좌 현황

구분	강좌 수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계
개설강좌	112개(64.4%)	62개(35.6%)	174개(100%)

수강인원 현황

구분	수강인원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계
합계	1,086명(68.3%)	505명(31.7%)	1,591명(100%)

온라인 이용 현황(접속 건 수)

구분	홈페이지	블로그	누구나&아카이브	자료관	계	(일평균)
1월	57,773	9,923		2,000	69,696	2,248
2월	64,435	9,652		611	74,698	2,667
3월	64,799	9,844	※5월말 개설	606	75,249	2,427
4월	58,591	9,932		1,130	69,653	2,321
5월	52,431	8,569		1,142	62,142	2,004
6월	51,419		5,301	1,531	58,251	1,941
7월	48,473		7,303	1,505	57,281	1,847
8월	64,351		8,419	1,895	74,665	2,408
9월	43,175	※5월말 폐지	8,195	1,943	53,313	1,777
10월	44,037		13,603	2,515	60,155	1,940
11월	43,005		16,101	2,860	61,966	2,065
12월	55,698		18,881	3,656	78,235	2,523
합계	648,187	47,920	77,803	21,394	795,304	2,180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구독 현황

22호	01월 02일	4,771명	35호	07월 03일	5,868명
23호	01월 16일	4,871명	36호	07월 17일	5,946명
24호	01월 30일	4,903명	37호	07월 31일	5,999명
25호	02월 13일	4,930명	38호	08월 14일	6,074명
26호	02월 27일	5,160명	39호	08월 28일	6,200명
27호	03월 13일	5,228명	40호	09월 11일	6,235명
28호	03월 27일	5,315명	41호	09월 25일	6,251명
29호	04월 10일	5,408명	42호	10월 08일	6,288명
30호	04월 24일	5,629명	43호	10월 23일	6,341명
31호	05월 08일	5,705명	44호	11월 06일	6,38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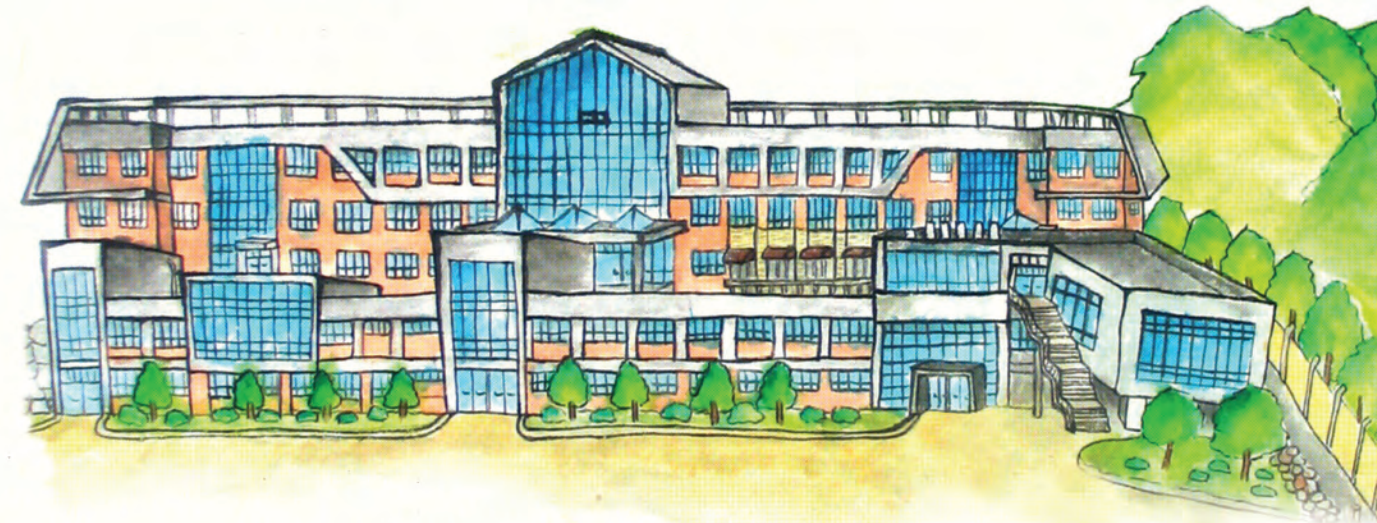
32호	05월 22일	5,723명	45호	11월 20일	6,448명
33호	06월 05일	5,741명	46호	12월 04일	6,481명
34호	06월 19일	5,831명	47호	12월 18일	6,628명
연간 26회 발행 / 연간 구독인원 150,355명					

언론보도 현황(건 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합계	4	1	11	33	16	23	23	23	19	22	4	3	182

시설사용 현황

구분	강의실	동아리실	상담실	자료관	학습카페	시설대관	합계	(일평균)
1월	3,708명	3,648명	1,492명	1,510명	1,183명	2,997명	14,538명	(559명)
2월	3,337명	3,408명	2,067명	2,030명	1,120명	3,183명	15,145명	(658명)
3월	4,020명	4,398명	1,929명	1,973명	2,406명	2,897명	17,623명	(705명)
4월	5,489명	4,562명	1,874명	1,960명	2,359명	2,882명	19,126명	(736명)
5월	5,053명	2,041명	1,248명	1,920명	3,011명	1,921명	15,194명	(608명)
6월	5,310명	4,569명	2,368명	1,825명	2,604명	2,934명	19,610명	(817명)
7월	4,517명	5,145명	1,550명	1,600명	2,695명	2,749명	18,483명	(685명)
8월	2,989명	4,847명	2,578명	3,199명	1,610명	4,008명	19,455명	(748명)
9월	3,704명	4,054명	1,496명	1,510명	1,901명	990명	13,655명	(650명)
10월	5,660명	4,802명	1,758명	1,425명	2,070명	3,628명	19,343명	(774명)
11월	5,764명	4,962명	1,495명	1,330명	2,658명	2,326명	18,522명	(712명)
12월	3,382명	4,798명	2,369명	1,100명	2,326명	4,545명	18,520명	(740명)
합계	52,933명	51,234명	22,224명	21,382명	25,943명	35,060명	209,214명	(699명)



평생학습관은 우리들의 학교입니다.
정다운 우리 학교로 놀러오세요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창의적 상상력으로 삶과 삶과 지역이 행복하게 결합하는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수원시의 많은 평생학습기관들과 협력하고 연대하여
배움과 성장의 네트워크를 엮어내겠습니다.
단순한 프로그램 공급자가 되는 것을 항상 경계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우고도 삶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배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평생학습관에서의 배움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렇게 성장한 시민들이 지역을
더욱 아름답고 따뜻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배우고 싶은 게 있는 수원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학교,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학교, 그리하여 수원시를 변화시키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수원 시민 여러분, 평생학습관은 우리들의 학교입니다.
정다운 우리 학교로 놀러 오세요!



2013 교육프로그램 목록

겨울학기(1~2월) 교육프로그램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명사특강	[1월] 손미나의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손미나	청소년이상	1
	[2월] 이근철의 효과적인 영어학습법	이근철	청소년이상	1
담쟁이 문화살롱	[1월] 유경희의 나의 욕구분석	유경희	청소년이상	1
찾아가는 학교	신나는 공부방 어린이 경제교실	최대희	어린이	4
	조원동 어린이 경제교실	김은선	어린이	4
	조원동 어린이 발명교실	이선희	어린이	4
	꽃피 어린이 경제교실	김호연	어린이	4
	꽃피 어린이 발명교실	고영래	어린이	4
문화예술학교	윤경숙의 캘리그래피교실	윤경숙	성인	8
	박영환의 서각교실	박영환	성인	8
	이훈의 뮤지컬교실	이훈	성인	8
	이오연의 드로잉 미술교실	이오연	성인	8
거북이공방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세이브더칠드런	전체	2
	북극곰 휴대폰 액세서리 만들기	남중영외	전체	1
어린이 프로그램	어린이 미니멘토 A반	민인엽	어린이	6
	어린이 미니멘토 B반	민인엽	어린이	6
	어린이 만화교실 A반	김을호	어린이	6
	어린이 만화교실 B반	김을호	어린이	6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스피치	진성희	청소년	3
	누구나쌤 1기	이희원외	청소년	2
	청소년 포크기타 계속반	김동현	청소년	8
	청소년 포크기타 시작반	김동현	청소년	8
장애인 청소년	장애인 청소년 종이공예	이명희	청소년	8
	장애인 청소년 형겅공예	이수화	청소년	8
	장애인 청소년 옛그림	이상은	청소년	8
마을열린극장	[2월] 새로운 학교	강에스더	청소년이상	1
컴퓨터	왕초보 컴퓨터 한글반	이재경	성인	16
	왕초보 컴퓨터 인터넷반	이재경	성인	16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외국어	왕초보 컴퓨터 기초반	임선자	성인	16
	왕초보 영어 계속반	홍이성	성인	16
	왕초보 영어 시작반	홍이성	성인	16
	기초영어회화	홍이성	성인	16
음악	우쿨렐레 시작반	한은경	성인	8
	우쿨렐레 계속반	한은경	성인	8
	수요드럼 계속반	오세준	성인	8
	수요드럼 시작반	오세준	성인	8
	금요드럼 시작반	오세준	성인	8
	금요드럼 계속반	오세준	성인	8
	토요드럼 시작반	오세준	성인	8
	토요드럼 계속반	오세준	성인	8
건강체육	클래식기타 시작반	신인근	성인	8
	클래식기타 계속반	신인근	성인	8
	댄스스포츠 오전반	홍석민	성인	16
	댄스스포츠 저녁반	홍석민	성인	16
	요가 평일반	김현	성인	16
	요가 토요일반	김현	성인	8

1학기(3~6월) 교육프로그램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명사특강	[3월] 구성애의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	구성애	청소년이상	1
	[4월] 박원순의 책 읽는 마을이 희망이다	박원순	청소년이상	1
	[5월] 김남희의 길 위를 걸으며 꿈을 만나다	김남희	청소년이상	1
	[6월] 윤여준의 밥그릇과 민주주의	윤여준	청소년이상	1
담쟁이 문화살롱	[3월] 아코디언 밴드썰룩의 이야기가 있는 작은 콘서트 베푸이는 한 철만 산다	썰룩밴드	청소년이상	1
	[4월] 미술평론가 김종길의 봄을 보다	김종길	청소년이상	1
	[5월] 마음, 몸으로 시를 쓰다	이두성	청소년이상	1
수원시민인문대학 3기	[인문대학1] 노자 <도덕경>읽기	유병래	성인	12
	[인문대학2] 한국사1: 왕비로 보는 조선의 역사	한춘순	성인	12
	[인문대학3] 환대의 식탁1: 이웃과 사랑의 공동체	신충식	성인	12
	[인문대학4] 근대 예술과 함께 하는 미학	이은정	성인	12
	[인문대학5] 유럽문화 읽기1-르네상스에서 아방가르드까지	이병수	성인	12
	[인문대학6] 인문학 스토리텔링: 20세기 동아시아 역사와 문학을 말하다	이명원	성인	12
	[인문대학7] 괴상한 소설과 창조적 독자: 현대 문제작을 찾아서	김은하	성인	12
	[인문대학8] 플루투스의 나라-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	이병태	성인	12
	[인문대학9]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니코마코스 윤리학>읽기	서동은	성인	12
	[인문대학10] 공자: 군자의 길을 가다	전호근	성인	12
교사인문학	수원 교사 인문학 아카데미 2기	고병현외	성인	8
학부모 아카데미	2013수원 학부모 아카데미 특강	김경관	성인	1
	2013수원 학부모 아카데미 (초등)	이희경	성인	5
	2013수원 학부모 아카데미 (중등)	이희경	성인	5
와글와글포럼	[포럼1차] 와글와글 기획포럼	김승수의	성인	1
	[포럼2차] 학원법 개정 내용 들여다보기	이혜원외	성인	1
평생학습상담사 양성과정	평생학습상담사 양성과정	-	성인	14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고두환외	성인	14
누구나학교 오픈 양성과정	거점 누구나학교 오픈 양성과정	이창림	성인	1
공동체 영화 상영	공동체 영화상영 위캔두넷 오전	-	청소년이상	1
	공동체 영화상영 위캔두넷 오후	-	청소년이상	1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문화예술학교	이훈의 뮤지컬교실 입문반	이훈	성인	16
	이훈의 뮤지컬교실 공연반	이훈	성인	16
	이오연의 드로잉미술교실 중급반	이오연	성인	16
	윤경숙의 감성 손글씨교실	윤경숙	성인	16
거북이공방	콜라비피클 만들기	최재숙	성인	1
	베란다키친가든	양진주	성인	1
	천연 자외선 차단제 만들기	이정미	성인	1
기획강좌	약초교실	장광진	성인	4
	막걸리교실	허시명외	성인	4
	옷장 속에 갇힌 나를 찾아서	제미란	성인	6
업무스킬	프레지 마스터	유장휴	성인	2
	행사 기획과 운영	한귀리	성인	2
	카피는 감각이 아니다	이현구	성인	2
	행사 공간 디자인	김수민	성인	1
시민광장	[3월] 겸재 정선의 조선의 산천을 재발견하다	박한용	청소년이상	1
	[4월] 단원 김홍도의 노동과 일상 속의 이야기를 발굴하다	박한용	청소년이상	1
	[5월] 해원 신윤복의 인간의 욕망을 들추다	박한용	청소년이상	1
	[6월] 일제강점기 전쟁미술 죽음과 복종의 미학과 예술의 자살	박한용	청소년이상	1
시민열전	[3월] 행동하는 열혈청춘을 만들다	고경아	청소년이상	1
	[4월] 주거문제를 유쾌하게 풀어내다	유농살구	청소년이상	1
	[6월] 편견을 깨준 감수성을 만나다	박병두	청소년이상	1
마을열린극장	[3월] 헬프	-	청소년이상	1
	[4월] 미안해, 고마워	-	청소년이상	1
	[5월] 화려한 휴가	-	청소년이상	1
	[6월] 할머니는 일학년	-	청소년이상	1
어린이 프로그램	어린이 머니멘토 A반	민인엽	어린이	16
	어린이 만화교실 A반	김을호	어린이	16
	어린이 만화교실 B반	김을호	어린이	16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포크기타 계속반	김동현	청소년	16
	청소년 포크기타 시작반	김동현	청소년	16
장애인 청소년	장애인 청소년 옛그림	이상은	청소년	12
	장애인 청소년 종이공예	이명희	청소년	12
	장애인 청소년 헝겊소품	정미숙	청소년	12
컴퓨터	실무 엑셀 기초반	공은화	성인	16
	왕초보 컴퓨터 기초반	이재경	성인	32
	왕초보 컴퓨터 활용반	임선자	성인	32
외국어	왕초보 영어 시작반	홍이성	성인	32
	왕초보 영어 계속반	홍이성	성인	32
	기초영어회화	홍이성	성인	32
	여행영어회화	김선주	성인	16
음악	우쿨렐레 시작반	한은경	성인	16
	우쿨렐레 계속반	한은경	성인	16
	클래식과 포크기타 시작반	신인근	성인	16
	클래식과 포크기타 계속반	신인근	성인	16
	수요드럼 초급반	오세준	성인	16
	수요드럼 계속반	오세준	성인	16
	금요드럼 초급반	오세준	성인	16
	금요드럼 계속반	오세준	성인	16
	토요드럼 초급반	오세준	성인	16
	토요드럼 계속반	오세준	성인	16
건강체육	요가 평일반	김현	성인	32
	요가 토요일반	김현	성인	16
	댄스스포츠 오전반	홍석민	성인	32
	댄스스포츠 저녁반	홍석민	성인	32
사진영상	PhotoScape A반	문경순	성인	8
	PhotoScape B반	문경순	성인	8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LiveMovieMaker A반	윤영미	성인	8
	LiveMovieMaker B반	윤영미	성인	8
	디지털카메라 A반	나종민	성인	4
	DSLR A반	나종민	성인	8
	DSLR B반	나종민	성인	8
	글쓰기	내 인생의 글쓰기 입문반	김소라	성인

여름학기(7~8월) 교육프로그램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명사특강	[7월] 이미도의 픽사에서 창조적 상상력을 훑쳐라	이미도	청소년이상	1
	[8월] 표창원의 한국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표창원	청소년이상	1
담쟁이 문화살롱	[7월] 출장작곡이야기, 수원을 노래하다	김동현	청소년이상	1
	[8월] 생각하는 손: 잠재되어 있는 영재성 개발을 위한 문화교육	손채수	청소년이상	1
와글와글포럼	[포럼3차] 문화예술가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기획방법	천호균외	성인	1
협동조합 디자이너 양성과정	수원SDS 협동조합을 디자인하다	김성오외	성인	9
누구나학습마을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비전 수립트레이닝	김미영	성인	5
	코디네이터 실무트레이닝 1	임성미외	성인	1
	코디네이터 실무트레이닝 2	김성학	성인	1
	코디네이터 실무트레이닝 3	남경아	성인	1
문화예술학교	코디네이터 실무트레이닝 4	이강룡	성인	1
	이오연의 드로잉 워크숍	이오연	성인	8
	이훈의 뮤지컬교실 공연반	이훈	성인	8
	이훈의 뮤지컬교실 입문반	이훈	성인	8
예술인문학	윤경숙의 전각 캘리그래피교실	윤경숙	성인	8
	김종길의 미술관 읽어주는 남자	김종길	성인	3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거북이공방	반려동물을 만나기 위한 준비	신미라	전체	1
	반려동물과 잘살기 그리고 내 삶의 변화	김보경	전체	1
업무스킬	프레지 초급반	유장휴	성인	2
	프레지 중급반	유장휴	성인	2
마을열린극장	[7월] 춤추는숲	-	청소년이상	1
	[8월] 인사이드 잡	-	청소년이상	1
어린이 프로그램	어린이 머니멘토 A반	민인엽	어린이	6
	어린이 만화교실 B반	김을호	어린이	6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포크기타	김동현	청소년	8
	누구나쌤 2기	권지현외	청소년	2
장애인 청소년	장애인청소년 옛그림	이상은	청소년	8
	장애인청소년 종이공예	이명희	청소년	8
	장애인청소년 형값공예	정미숙	청소년	8
컴퓨터	실무 엑셀 기초반	공은화	성인	16
	왕초보 컴퓨터 기초반	이재경	성인	16
	왕초보 컴퓨터 활용반	임선자	성인	16
외국어	왕초보 영어 기초반	홍이성	성인	16
	왕초보 영어 계속반	홍이성	성인	16
	기초영어회화	홍이성	성인	16
	여행영어회화	정선영	성인	8
음악	우쿨렐레 시작반	한은경	성인	8
	우쿨렐레 계속반	한은경	성인	8
	금요드럼 시작반	오세준	성인	8
	금요드럼 레벨 1	오세준	성인	8
	수요드럼 레벨 2	오세준	성인	8
	수요드럼 레벨 3	오세준	성인	8
	토요드럼 초급반	오세준	성인	8
	토요드럼 계속반	오세준	성인	8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건강체육	클래식과 포크기타 시작반	신인근	성인	8
	클래식과 포크기타 계속반	신인근	성인	8
	댄스스포츠 오전반	홍석민	성인	16
	댄스스포츠 저녁반	홍석민	성인	16
	요가 평일반	김현	성인	16
사진영상	요가 토요일반	김현	성인	8
	사진편집과 E-Book	문경순	성인	8
	디지털카메라	나종민	성인	4
글쓰기	DSLR	나종민	성인	8
	내 인생의 글쓰기	김소라	성인	8

2학기(9~12월) 교육프로그램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명사특강	[9월] 박재동의 만화로 돌아보는 나의 삶, 그리고 아버지를 말하다	박재동	청소년이상	1
	[10월] 정재승의 창의적인 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나?	정재승	청소년이상	1
	[11월] 박경철의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는 지혜	박경철	청소년이상	1
담쟁이 문화살롱	[10월] 커뮤니티 댄스팀 아하의 몸과 춤으로 이야기 나누기	아하팀	청소년이상	1
	[11월] 문학과 그림의 밤: 골목에서 만들어지는 예술이야기	이오연외	청소년이상	1
수원시민 인문대학 4기	[인문대학1] 장자로 읽는 생활물정과 우주물정	유병래	성인	12
	[인문대학2] 맹자: 천하를 다스리는 자를 다스린다	전호근	성인	12
	[인문대학3] 한국어: 숨은 권력자 환관과 궁궐이 꽃 궁녀	한춘순	성인	12
	[인문대학4] 공동체를 꿈꾸는 시대: 코쿤과 코뮌 사이	이병태	성인	12
	[인문대학5] 현대 예술과 함께 하는 미학	이은정	성인	12
	[인문대학6] 유럽문화읽기: 문예적 상상력과 담론	이병수	성인	12
	[인문대학7] 소설과 함께 하는 문명탐구: 품위 있는 삶과 공감 읽기	김은하	성인	12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인문대학8] 보편적 환대: 마이클 샌델의 정의로부터 테리 쿠퍼의 윤리까지	신종식	성인	12
	[인문대학9] 철학이란 무엇인가: 초보자를 위한 철학입문	서동은	성인	12
교사인문학	수원 교사 인문학 아카데미 3기	도정일의	성인	8
와글와글포럼	[포럼4차] 협동의 예술, 놀이로 꿈꾸다	이안나의	성인	1
	[포럼5차] 콜마이네임을 만나다	정신외	성인	1
인문학 세미나	인문사회학 세미나	노명우	성인	8
평생학습상담사 양성과정	평생학습상담사 역량강화	나종민의	성인	2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실무트레이닝 5	김미영	성인	1
	코디네이터 실무트레이닝 6	김미영	성인	1
커뮤니티댄스	연무동 가로와 세로팀	이아란	성인	15
	호매실동 능실마을팀	양수진	성인	15
	새벽빛 장애인팀	이아란	성인	15
길 위의 학교	[1차] 길 위에서 수원을 만나다	김준혁	청소년이상	1
	[2차] 우리 농업의 출발지, 서호	김준혁	청소년이상	1
	[3차] 칠보산 습지 기행	류현상	청소년이상	1
	[4차] 빛의 가르침, 광고산	김현희	청소년이상	1
	[5차] 지동마을과 사람들	기노현	청소년이상	1
	[6차] 화성 안 문화거리와 역사 유적	이형복	청소년이상	1
문화예술학교	윤경숙의 캘리그라피교실	윤경숙	성인	16
	이훈의 뮤지컬교실 입문반	이훈	성인	16
	이훈의 뮤지컬교실 공연반	이훈	성인	15
	이오연의 드로잉미술교실 중급반	이오연	성인	15
거북이공방	보자기 포장법	김지현	성인	2
	건강 양념으로 차린 평화가 깃든 밥상	송정은	성인	4
	친환경 스테인리스의 모든것	전지현	성인	2
기획강좌	약초교실	장광진	성인	4
	전통주교실	허시명외	성인	4
	건축가와 손 잡고 좋은 집 짓기	유한짐	성인	8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기획워크숍	문화기획 워크숍	김영현외	성인	8
업무스킬	워드프레스로 웹 사이트 만들기	황호연	성인	2
	김프로 웹포스터 만들기	이용태	성인	2
	조직 소통 능력을 높일 온라인 서비스	권난실	성인	1
	피피티보다 잘나가는 프레지	유장휴	성인	2
	직장인을 위한 나의 첫 책 쓰기	오병곤	성인	3
	홍보 인쇄실무 가이드	박시혜정	성인	2
	에버노트로 스마트워크 & 스마트라이프 만들기	김성민	성인	2
시사토크	[9월] 전력수급, 진실과 거짓	이유진	청소년이상	1
	[10월] NLL과 한반도 평화	이시우	청소년이상	1
	[11월] 국민연금 그리고 기초연금 논란	최용선	청소년이상	1
	[12월] 한국 근현대사 논쟁	이종우	청소년이상	1
도시생활자	책 읽기 생활	안성준	성인	4
	이타적 경제 생활	이수연	성인	7
	회사 생활	김순천	성인	4
마을열린극장	[9월] 말하는건축가	-	청소년이상	1
	[9월] 별별이야기2	-	청소년이상	1
	[10월] 어느날 그 길에서	-	청소년이상	1
	[11월] 노 임팩트 맨	-	청소년이상	1
	[12월] 엔딩 노트	-	청소년이상	1
어린이 프로그램	어린이 머니멘토 B반	민인엽	어린이	16
	어린이 만화교실 A반	김을호	어린이	16
	어린이 만화교실 B반	김을호	어린이	16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 포크기타 시작반	김동현	청소년	16
	청소년 포크기타 계속반	김동현	청소년	16
장애인 청소년	장애인 청소년 옛그림	이상은	청소년	12
	장애인 청소년 종이공예	이명희	청소년	12
	장애인 청소년 형값공예	정미숙	청소년	12

프로그램 Review

구분	강좌명	강사	대상	회수
컴퓨터	실무 엑셀 기초 A반	공은화	성인	16
	실무 엑셀 기초 B반	공은화	성인	16
	왕초보 컴퓨터 기초반	이재경	성인	32
	왕초보 컴퓨터 활용반	임선자	성인	32
외국어	왕초보 영어 시작반	홍이성	성인	32
	왕초보 영어 계속 A반	홍이성	성인	32
	왕초보 영어 계속 B반	홍이성	성인	32
	기초영어회화	홍이성	성인	32
	여행영어회화	정선영	성인	16
음악	우쿨렐레 시작반	한은경	성인	16
	우쿨렐레 계속반	한은경	성인	16
	클래식과 포크기타 시작반	신인근	성인	16
	클래식과 포크기타 계속반	신인근	성인	16
	금요드림 초급 7시반	오세준	성인	16
	금요드림 초급 8시반	오세준	성인	16
	수요드림 계속 7시반	오세준	성인	14
	수요드림 계속 8시반	오세준	성인	14
	토요드림 초급반	오세준	성인	16
	토요드림 계속반	오세준	성인	16
건강체육	댄스스포츠 초급 오전반	홍석민	성인	32
	댄스스포츠 초급 저녁반	홍석민	성인	32
	요가 평일반	김현	성인	32
	요가 토요일반	김현	성인	16
사진영상	사진편집과 E-Book A반	문경순	성인	8
	사진편집과 E-Book B반	문경순	성인	8
	디지털카메라 A반	나종민	성인	4
	디지털카메라 B반	나종민	성인	4
	DSLR A반	나종민	성인	8
	DSLR B반	나종민	성인	8
글쓰기	내 인생의 글쓰기	김소라	성인	16

- 공원에서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다
-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 시민제작 일상학습
- 공동체 영화상영
- 인큐베이팅센터 99℃
- 인문학 세미나
- 길 위의 학교
- 예술인문학
- 막걸리교실
- 내 인생의 글쓰기
- 도시생활자를 위한 일주일의 변화

만석공원에서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감흥의 세계에 빠지다

기대치도 없던 곳에서 맘 속에 그려오던 풍경을 만날 수도 있나보다. 만석 공원에서 열린 누구나학교의 풍경이 그랬다. 화창한 하늘 아래 푸른 잔디밭에 펼쳐진 빨간색 파라솔, 그 사이로 아이들부터 학생, 어르신까지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이곳저곳 호기심에 차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 별 생각 없이 만석공원을 따라갔던 나는 그 즐거운 풍경에 점차 흥이 나기 시작했다.



평소 나는 배움을 익히는 데에 심각한 태도를 갖곤 한다. 그 덕분에 아직도 기타를 못 배우고 있다. 만석공원 한 귀퉁이에 앉아 우쿨렐레를 뜯고 있는 무리를 만나니 나도 당장 그곳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고 싶다는 즐거운 충동이 생겼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만만 있는 게 아니라서 우쿨렐레 파라솔은 늘 젊은 학생들로 만석이였다. '손채수님의 집이야기'에서는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세계'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고 아주머니 두 분이 흠뻑 빠져있었다. 무

슨 이야기일까 궁금해 하며 살짝 들어보니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부족은 누군가 쓰던 물건에는 그 사람의 '영'이 깃든다고 믿어 함부로 쓰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집도 역시 자신의 흔적이 깃들어있는 어떤 존재이다. 이들은 식량과 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동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흔적이 깃든 집을 머리에 지고 함께 이동한다고 했다. 손채수님은 집을 재산 증식 수단이나 값비싼 물질로만 바라보는 세태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으셨다고 했다. 연이어 티베트, 이집트의 집 이야기를 듣다보니 십분 만에 세계 일주를 한 기분이었다.

이리저리 구경하며 어르신들이 만들어 파시는 슬러쉬도 사먹으며 늘던 차에 미술 잡지 경향 아티클의 기자분의 미술 이야기에 참여했다. '최근에 어떤 전시를 보았나'고 질문하셔서 더듬더듬 이야기를 이어나가다보니 어느새 내가 신이 나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인지 점차 사람들이 몰려와 어느새 파라솔이 만석이 되었다. 한명 한명에게 물어보니 우리 모두 미술에 흥미가 있고 즐기고는 싶은데 아직 그 방법을 모르는 상황이었다. 자연스레 미술관을 즐기는 팁과 공부 방법, 추천 도서 등 기자님의 알짜배기 정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취향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좋



아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깊게 파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라는 대목에서 깊은 인상과 용기를 받았다.

고즈넉한 토요일 오후 만석공원의 누구나학교에서 어슬렁거리다보니 맘 속에서는 다채로운 감흥이 일어났다. 고작 몇 시간 만에 타인의 세계 속으로 깊숙이 빠져있다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일까. 사실 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은 '그 사람이 깊이 매료되어 있는 세계'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즐거운 껍리를 다른 이에게 전파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매우 이로운 일이다. 그것이 '네가 즐거운 것이 나도 즐겁다'라는 지점으로 다다른다면 거기서 문화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

또한 만석공원에서 펼쳐진 누구나학교의 광경

은 지역 커뮤니티의 새로운 형태를 내게 보여준 것 같다. 보통 지역 공동체라고 하면 마을과 같이 '정겹고 끈끈하며 오래도록 정주하는 공동체'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누구나학교처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장에서 지식과 즐거움을 매개로 새로운 관계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사람 사이의 연결점이 만들어지며, 궁극적으로 커뮤니티 전체가 '함께 느끼는 공감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 지역이 배타적 관성을 벗어나 인간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누구나학교와 같은 열린 관계망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다.



2013. 6. 8.
최현지 수강생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

이웃의 얼굴도 제대로 모르고 마주쳐도 인사를 주고받기가 어색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좋은 이웃을 만나기를 바라고 삶의 공간이 보다 사람냄새로 가득하길 원한다. 어떻게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보다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소소한 만남부터 다양한 공동체 활동까지 가능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고민을 풀어보고자 마을에서 이웃들과 함께 놀면서 배우자는 취지로 '누구나학습마을'을 시작하였다. 누구나학습마을에는 마을 곳곳에서 이웃과 이웃이 만나고 배움과 나눔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매개역할을 하는 학습마을 코디네이터들이 있다. 2013년 7월부터 4개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2013년 6월 경 저는 마을 내 작은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지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 하는 도서관은 마을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용시설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꾸며서 만들어 낸 도서관으로 2013년 초에 열었습니다. 이 곳 도서관의 관장님께서 누구나학습마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코디네이터가 있다고 권유를 받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정(능실마을 담당 코디네이터)

“누구나학습마을! 듣기만 해도 정감가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첫째는 마을에서 맘껏 놀았던 어릴 적 기억 때문이고, 둘째는 여성단체 활동을 하면서 풀뿌리 지역운동에 대해 관심을 가졌지만 다른 사안에 밀려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 때문이었어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을 해 보기로 결심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류명화(매탄4동 담당 코디네이터)



“원래 저는 출판 편집자였습니다. ‘가지 있는 일을 하는 사람,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담아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이야기 속에 빠져 책을 편집하는 몇 달간, 다른 세상을 살지요. 다른 삶의 방식들로 세상과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라는 일도 전에 제가 했던 일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았어요.”

오은숙(지원센터 담당 코디네이터)



“한 달간 교육을 받고, 걱정과 설렘으로 7월 17일 첫 출근을 했어요. 순탄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고,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여주는 주민들과 활기찬 인사를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모습만으로도 코끝 찡한 감동을 느끼죠. 3년 후 조원1동에 수많은 학습공동체가 있어 무척 바빠진 내 모습을 상상하며 기쁜 하루를 보냅니다.”

김지영(조원1동 담당 코디네이터)



“화서1동 주민들과 함께 배워보고 싶은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동네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분을 소개 받아 만나보기도 합니다. 대부분 나는 가르쳐 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며 손사래를 치다가도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해 줄 수 있다는 분들이 강사로 나서 주십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놓쳐버린 지난 강좌를 다시 해 달라고도 하시고 다음번에는 이러저러한 것을 배워보고 싶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신은미(화서1동 담당 코디네이터)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몇날 며칠을 고심해서 작업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폐강이 되어 너무나 속상하고 참여하는 주민 강사분에게 미안한데, 때로는 정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벅찬 감정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마을을 지나다니다 보면 이제는 주민들이 아는 척을 해주시고 인사를 해 주신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즐겁습니다.”

김문정(능실마을 담당 코디네이터)



“길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코디의 역할에 깊숙이 빠지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왜냐

하면 성과에 매몰되면 함께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일이라는 것이 사람들 속에 스며들지 않으면 오래 지속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학습마을 코디네이터의 초심을 잃지 않고, 마을살이를 통해 실패하고, 상처 받는 많은 일들을 잘 견디며 즐겁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류명화(매탄4동 담당 코디네이터)

“마을이란 이야기가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껏 마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시간도, 공간도, 또 마

시민제작 일상학습, 인간의 배움에는 경계가 없다

음도 없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고, 성별이 다른 남녀가 만나, 그 다름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듣고 다시 배워가는 누구나학습마을. 전 상상합니다. 다양한 배움의 공동체가 이곳저곳에서 열리는 꿈,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너와 내가 언제든 연대할 수 있는 꿈... 전 앞으로 이 많은 이야기들을 발굴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은숙(지원센터 담당 코디네이터)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된 누구나학습마을은 이웃간에 만남과 배움이 가능한 학습공동체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코디네이터들의 노력과 열정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누구나학습마을은 상상했던 모습과 어긋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좌절을 맛보기도 하겠지만, 마을에서 자발적이고 자립적인 학습공동체 더 나아가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코디네이터들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2013. 11. 20.
박은미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우리 사회의 교육에는 짙은 경계선이 깔려있다. ‘일’이라는 단어 못지않게 ‘교육’이라는 단어에도 우리가 부담감을 느끼곤 한다는 점에서 배움이라는 건 사실 삶 속에 스며들지 못한 처세술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의 끄트머리에서 주체적인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저마다 다른 옷을 입고 달려 나가고 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있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공통된 고민의 흐름을 타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재조명하려는 사람들이 수원 시평생학습관으로 모여들었다.

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시민의 힘, 가능성을 넘어 일상으로

기조발제를 맡은 정민승 교수는 ‘평생학습이란 사실 상 우리의 일상, 사회운동 기관과 제도가 한 덩어리가 되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것이 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제를 꺼냈다. 랭그랑과 들로어가 제시했던 평생교육의 의미를 덧붙이며 평생교육이란 학습이라는 개념이 일상으로 확장되게 해주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개인이 자기 주체를 찾아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이 생명을 갖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학습의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학습의 해방이다. 해방은 지적 능력의 평등을 전제로 모든 인간이 자

신의 방식대로 지각방식의 틀을 재편성할 때 찾아온다. 그러므로 우선은 학습자가 스스로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한 학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경계를 허물어야 할 것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만드는 배움과 공유, 똑똑도서관

똑똑도서관 김승수 관장은 말한다. “똑똑도서관이요?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닌 문화적으로 풍부해지는 곳입니다. 아파트가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건, 주민들이 이웃들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 가질 거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하는 곳이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지으면 됩니다. 이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책을 통해 주민들은 서로를 알아간다. 책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민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똑똑도서관은 책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곳, 일상의 상담이 가능한 도서관이었다.



시니어들의 학습공동체, 지혜로운 학교
지혜로운 학교의 이정희 교수는 배우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형이었다. 은퇴한 사람들을 위한 학습 모델인 영국의 U3A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한국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곳의 시스템은 선순환구조였고, 그 체계가 아름답다고 여겨졌습니다. 이타성이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교육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로운 학교는 배움과 나눔을 통해 학습공동체를 구현하는 곳이다.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따르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매일 2~3개씩의 강좌가 열리고 있다.



온라인 경험공유 플랫폼, 위즈돔
위즈돔 한상엽 대표는 왜 자꾸 빈곤문제가 반복될까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면서 소셜벤처라는 지향점을 갖고 시작했다고 한다. 일시적이고 수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플랫폼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위즈돔이라는 쇼핑몰에는 물건이 아니라 사

람이 전시되어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함께 배우고, 만들고, 나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숨겨져 있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행사들을 발굴하기도 한다.

플랫폼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사람들을 만나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비전을 지켜내는 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로 신뢰를 형성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제도권 평생학습 패러다임의 변화, 누구나학교

정성원 관장은 누구나학교를 지역과 개인을 변화시키는 솔루션이라고 정의하였다. 평생학습 관련기관의 운영 제약 요인들을 지적하면서, 공급과 소비의 규정을 뒤집어 보자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누구나학교였다. 명사 1명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300여명을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 소비자로 그치게 하지 말고, 각각 가지고 있는 지혜를 끄집어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고민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누구나학교는 앞으로 중흥으로 나아갈 것이다. 개인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시청, 경찰청, 경희대 학생 등 단위별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하여 학교를 풍

성하게 만들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이 두 형태가 지역과 결합되는 것이 목표다. 국적 없는 평생학습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실현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실현되어야 하므로.



마을 전체가 캠퍼스, 일본 시부야대학
시부야대학의 사교 야스야키 학장은 일상의 학습으로 지역을 바꾸고자 실천하는 곳이 시부야대학이라고 한다. 시부야대학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수업코디네이터. 수업코디네이터들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기획하여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체계이다.

시부야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현장에 나가서 기획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지역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각 수업에 적절한 공간을 배치하는 것도 지역의 공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시부야 전체가 곧 시부야대학의 학습 공간이다. 그리고 시부야 시민들은 시부야대학을 통해 지역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다.

점이 모여 도형을 만들 듯 패러다임의 변화도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전에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심포지엄이 끝나고 네트워크 파티가 이어졌다. 네트워크 파티장도 북적이는 것을 보며 그동안 교육과 학습의 본질 그리고 그 본질의 제대로 된 구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고 선이 모여서 도형을 만들어내듯이 패러다임의 변화 또한 이렇게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네트워크를 이루었을 때 수면으로 떠오른다. 떠먹여주는 교육, 주어지는 대로 행하는 학습이 아니라 자기성찰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그리움을 가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민제작 일상학습을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그려볼 수 있었다.

2013. 4. 25.
이미진 수원시평생학습관 인턴

웃고 감동하며 협동조합을 배운다

‘고삐 풀린 자본주의’의 횡포 앞에서 호혜, 연대, 협동의 가치가 절실히 요청되는 지금,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며 여러 가지 실험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한 형태로 비교적 이름이 익숙한 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협동조합이 ‘핫’한 시점에 협동조합 관련 영화 한 편이 여러 공동체와 모임들에서 입소문을 타고 활발하게 상영되고 있습니다. 웃고 감동하며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을 이해하게 한다는 <위 캔 두 댓 WE CAN DO THAT>이라는 영화. 예술영화전용관에조차 걸리지 못했던 2008년 제작된 이탈리아 영화의 어떤 미덕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화를 찾게 하는 것일까요.

실화를 배경으로 하는 <위 캔 두 댓>을 보다 잘 이해하며 보기 위해서는 바자리아 법과 논첼로 협동조합 이야기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자리아 법(Basaglia Law)

이탈리아 정신과 의사 바자리아(Franco Basaglia, 1924~1980)의 이의제기, 즉 “광기란 인간의 한 상태이므로 무엇보다도 사회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상학, 고프만, 푸코 등의 영향을 받았던 바자리아

는 배설물 속에서 힘없고 벌거벗은 환자들이 울며 소리 지르는 상황을 만드는 전통적 정신과 치료에 반감을 갖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 부임한 후 침대에 환자를 묶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환자의 격리도 폐지합니다. 이러한 그의 치료방법은 이탈리아 전역에 논쟁을 불러옵니다.

바자리아의 정신병원 내부 고발과 환자가 지역에서 생활하며 자립한다는 주장은 점차 확산되어 1978년 정신병원 폐기를 결정한 이른바 바자리아 법, 180호 법까지 이끌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1999년 이탈리아 전역에서 마니코미오(manicomio, 정신병원)는 사라집니다. 현재는 환자들을 강제 구금, 격리시키는 대신 종합병원 또는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에 단기간 입원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논첼로(Noncello) 협동조합

바자리아법 이후 <위 캔 두 댓>의 모델이 되는 협동조합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1982년 포르테노네에서 한 정신병원이 문을 닫은 후 3명의 정신과 의사와 6명의 환자들이 논첼로 협동조합을 함께 시작합니다. 논첼로 협동조합은 가사·청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노약자 돌보기, 녹지관리, 물류 등 다양한 일을 함께 합니다.

비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성

공요인으로 뽑는 논첼로 협동조합은 안으로 숨어들지 않고 밖으로 열린 연대와 협동을 생산하는 곳으로 자신들을 규정합니다. 2,5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있어 ‘협동조합의 메카’라 불리는 이탈리아에서도 논첼로는 최대 협동조합 중 하나이며 대표적인 장애인 협동조합입니다.

공동체 영화상영, 위 캔 두 댓

<위 캔 두 댓>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 관련 11개 단체가 모여 공동체 상영 형식으로 배급했습니다. 공동체 영화상영은 거대자본이 독점하고 있는 영화 제작/배급시장의 한 편에서 상영관을 얻지 못한 다양한 영화들을 신청, 대어를 통해 함께 보는 방식입니다. 영화 안에서만 협동의 가치와 대안이 녹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공동체 영화상영을 계기로 ‘수원 공동체영화상영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바자리아 법, 180호 법의 이름을 딴 ‘협동조합 180’과 실제 논첼로 협동조합의 인물을 모델로 한 벨로의 만남으로 <위 캔 두 댓>은 시작됩니다. ‘협동조합 180’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며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며 자활 프로젝트를 이어갈지, 또 그 안에서 발현되는 협동조합의 가치는 무엇이며, 민주적 정신치료의 방향은 어떠할지 등등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일단 이탈리아 코미디 영화 특유의 유머와 현실감각으로 쉽고 재미있게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 영화를 한번 직접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13. 6. 28.
이재은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교육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꾸며 모이는 공간

수원시평생학습관 3층에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큐베이팅센터 99°C입니다. 인큐베이팅센터 99°C는 '새로운 길로의 전환을 위해 자신을 단련하는 곳, 이제 1도만 더 끓으면 액체에서 기체로 질적인 변화가 이뤄지는 공간, 마지막 1도를 향한 담금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공간은 학습관의 '지역리더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수료생들이 스스로 사회공헌 활동과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3년 3월 19일에 오픈하였습니다.

현재 수원시평생학습관 인큐베이팅센터에는 2012년 재무관리사 양성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라운경제교육협동조합' 과 2013년 공정여행가 양성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공정여행 협동조합 마이플래닛' 2개 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각 팀의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라운경제교육
협동조합의 김
효연 대표를 만
나다**

**Q1. 라운경제교육협
동조합(이하 라운)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라운경제교육협동조합은 2012년 수원평생학습관에 서 실시된 재무관리사 양성과정 100시간을 수료한 사람들이 자발적인 학습동아리를 조직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어린이 경제교육 강사과정을 이수하고 서울 및 수원 지역 초등학교와 지역 아동센터, 종교단체 등에서 어린이 경제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돈 철학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싶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2. 어려움이 있었다면?

경제교육을 실행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무료강의를 실시했었기 때문에 경제 강의는 당연히 무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기관이 많았고, 기업 입장의 경제관을 가르치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학교나 여러 단체에서 경제교육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정도서관 담당자는 저희의 설명을 듣고 실시하려던 금융기관과의 경제교육을 마다하고 부모 대상 경제교육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 하였고 교육만족도가 높게 평가되어 다음해 교육도 진행하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후 마을 도서관을 포함해서 두 개의 도서관에서 경제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Q3. 입주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처음에는 학습동아리 형태였지만 동아리 형태의 한계를 느낄 즈음 수원시평생학습관 인큐베이팅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여러 강의실을 전전하면서 교육에 필요한 교구작업을 하고, 강사 자질을 위해 꾸준히 학습하면서, 여러 가지 책과 무거운 짐을 놓아 둘 곳이 없어 힘겨울 때가 많았습니다. 인큐베이팅센터에 입주하면서 많은 계획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라운의 미래를 꿈꾸고 착한 경제를 꿈꿀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4. 라운이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은?

수원시평생학습관의 도움을 받아 2012년 9월부터 '찾아가는 학교' 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에서 경제수업을 여러 차례 실시할 수 있었고, 취약 계층을 위한 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수원시평생학습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보험 다이어트, 건강한 소비생활, 부채 다이어트, 자녀 용돈에 관한 교육 및 모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희망제작소가 주관한 '시니어 사회공헌 아이디어대회' TOP5에 선정되어 250만원의 프로젝트 실행자금을 받아 '미자립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교육'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수원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드림 스타트' 사업 경제교육 부분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Q5. 라운의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은?

학습동아리로 시작하였지만, 지금 우리의 활동영역은 전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아리 구성원의 평생학습이나 취미에 대한 욕구를 넘어서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수원시민들에게 탈출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라운이 가진 원대한 목표입니다. 라운은 수원시민들의 건전한 가정경제 운용과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한 경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자료와 수업교구, 활동지를 꾸준히 제작하는 등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방식의 상담과 교육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좀 더 활발한 활동을 위해 수원시 사회적기업 창업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정여행 협동
조합 마이플래
닛 김용균 대표
를 만나다**

**Q1. 공정여행 협동조
합 마이플래닛(구 다
행)을 시작하게 된 동**

기는?

2013년 공정여행가 양성과정을 통해서 공정여행의

놀이, 대안적인 삶에 대한 탐색

가치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수원지역, 수원사람들을 만나며 수원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에 관심이 있고 기존 여행 산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모여서 강의와 함께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과정을 마치고 수원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생각한 사람들이 모여 8월 9일 수원시평생학습관 인큐베이팅센터에 입주하게 되었고, 마이플래닛이라는 이름으로 공정여행 기획자 협동조합을 설립준비 중입니다.

Q2. 마이플래닛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모인 저희들은 기존의 관광산업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환경, 문화, 경제적인 문제점을 포함하여 여행 자체의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소비재로서의 여행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행자와 지역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여행을 지향하고 여행산업 안에서 수원지역에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기반 공정여행' (CBT: Community Based on Tourism)을 기획해 나갈 것입니다.

Q3. 현재 마이플래닛이 하고 있는 활동은?

마이플래닛이 처음 시작한 작업은 '2013 수원시민 아이디어 창안대회'에 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마

이플래닛이 제출한 아이디어 '수원공정여행, 수원의 숨은 고수를 찾아라'가 Top5에 선정되었습니다. 수원지역의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분야, 전통계승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과 단체와의 만남을 통해 수원지역에서 자신의 꿈을 전문분야로 발전시키며 생활하는 다양한 고수를 찾고 그 결과물을 공정여행 코스와 결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길 위의 학교>에도 프로그램의 기획 및 답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Q4.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은?

앞으로 수원의 다양한 공정여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수원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수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수원시민들과 만나고 소통하길 바랍니다. 수원의 지역 발전 및 경제 발전과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 일조하고, 많은 여행자들에게 수원여행을 통해서 행복과 즐거움, 여행 후에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는 여행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2013. 9. 11.
유선에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사회인의 경계선 앞에서 있는 저는 요즘 매우 많이 불안하고 하루 하루가 재미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할 때에도, 혹은 주변에 취직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전자, H자동차, 아무리 좋은 대기업에 취직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기본적인 노동시간은 10시간에서 12시간, 경제적으로는 안정을 얻을지 몰라도 행복한 삶에 대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지내는 것이 당연하고 거기에 적응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다 학교 화장실에서 <놀이, 대안적인 삶에 대한 탐색>이란 긴 제목의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상에 노동중심의 사회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 이러한 사회 안에서 대안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을 위한 세미나라는 글을 읽었을 때 '어쩌면, 대안을 찾을지 몰라'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세미나는 상상 이상의 많은 것들을 저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진행된 노명우 교수님의 강연과 수업시간에 선정된 책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내가 불행했나?'에 대해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경쟁의 논리에 대입한 채 제가 떠밀리듯 생활을 할 때,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미나에 함께 하면서 사회학적 관점

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겼을 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로웠구나. 이게 사실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고 안개가 걷히는 듯 했습니다. 물론 대안적인 삶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방향을 잃고 떠도는 배였다면, 이제는 방향을 잡고 탐색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통하는 소통을 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참여 인원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고, 항상 1시간은 강연을 듣고 나머지 1시간은 토론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인생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 또한 저의 20대 세대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소통 과정이 참 행복했습니다.

'20대 때는 철도 씹어 먹을 나이이다, 도대체 뭐가 힘드냐'라는 이야기 속에 한 번도 제 또래가 아닌 그 이상의 어른들과 소통을 시도해보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함께 실제 삶에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인 삶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롭게 앞으로 전진만 고집하던 고삿 장군의 제 모습에서 벗어 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중 '초대 손님'이 오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안적인 삶에 대해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영감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달에 걸친 세미나는 끝났지만, 여기서 건네 받은 씨앗을 품고 사회로 나가기 전에 많이 탐색하고 고민하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함께 수업을 들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 세미나를 기획해 준 수원시평생학습관...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기에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는 작지만 실제로 서로에게 대안적 삶의 씨앗이 되어주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조금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사회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삶에 파묻혀 그런 것들에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면서, 나 또한 누군가의 삶에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2013. 12. 5.
박현진 수강생



광고산, 숲에서 배운 삶의 지혜

광고산, 첫 만남

10월 5일 토요일, 두 번째 길 위의 학교 프로그램이자, 첫 번째 답사 일정이 시작되었다. 이번 길 위의 학교 주제는 수원을 대표하는 자랑거리인 광고산이다. 소풍 나온 기분으로 광고공원 강감찬 동상 앞에 모였다. 14명의 여행 길벗들과 4명의 스텝 도우미, 그리고 오늘의 여행 길잡이가 되어주실 김현희(수원환경운동연합 교육팀장) 선생님. 이들이 이번 '광고산 길 위의 학교'의 길동무들이다.

광고산 나무 이야기

광고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숲에 사는 다양한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광고산 초입에서 만난 것은 단풍나무였다. 단풍나무는 그냥 단풍나무라고 생각했는데, 잎이 갈라진 정도와 프로펠러를 닮은 단풍나무 열매의 각도와 크기 등에 따라 다양한 단풍나무로 분류된다. 보기에는 비슷비슷한데 김현희 쌤은 참 섬세한 눈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셨다. 나무박사 김현희 쌤의 설명으로 둘레길에 있는 웬만한 풀, 나무에 대한 설명은 다 들은 것 같다. 기본 상식이 약했던 나로서는 헛갈리기가 일쑤고,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다. 열심히 듣고 이것저것 메모해볼 뿐이다. 나무와 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숲이야말로 삶의 지혜가 녹아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

다. 나에게 그런 생각의 거리들을 던져준 몇몇 나무와 풀에 대한 소개를 해 보고자 한다.

숲의 선생님들

쭈욱 꽃을 본 적이 있는가? 숲에서 꽃이 핀다는 것도 생소했지만, 쭈욱이 어엿한 풀처럼 크고 소박한 꽃을 피운다는 것이 놀라웠다. 쭈욱을 캐는 봄이 지나면, 그 쭈욱은 모습을 찾을 수 없어 봄에만 자라는 식물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사실 쭈욱은 꽃도 피고 크기도 꽤나 자라는 풀이었던 거다. 쭈욱에 대한 일부의 모습만 보고, 쭈욱은 이리이러하다며 너무나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라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일부 알고 있는 것으로 독단하지 않기를. '안다' 하는 것에 대한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강나무. 가지에서 생강 냄새가 나서 생강나무라고 한다. 산동백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김유정의 소설에 나오는 동백나무도 이 생강나무라고 한다. 생강나무 잎사귀는 약간 넓은 편인데, 위쪽에 나 있는 잎사귀는 그냥 동그란 모양이고, 아래쪽에 나 있는 것은 3개로 갈라져 있다. 아래에 있는 잎사귀가 갈라진 것은 빛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위에 있는 잎사귀가 더 많은



햇빛을 받겠다고 자기도 3개의 잎사귀를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 아래에 있는 더 많은 잎사귀는 살기가 힘들어 질 것이다. 생강나무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한 개의 잎사귀가 유난히 예뻐 보이는 것은, 만족할 줄 안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조화를 이루는 그 모습이다. 생강나무 잎은 지족과 겸손, 배려를 조용히 알려주는 것 같다.

팔 모양의 열매를 가진 팔배나무의 열매는 새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한다. 팔배나무의 생존전략은 새들에게 맛있는 열매를 제공하고, 새의 몸을 거쳐 배설됨으로써 종족번식을 하는 것이다. 식물과

동물의 승승전략이다. 같은 종을 뛰어넘어 이 같은 전략을 펼치는 팔배나무의 센스가 놀랍다. 내가 상대를 위해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너무 내 것만 챙기기보다는 약간의 빈틈이 둘의 관계를 더욱 조화롭게 하는 것 같기도 하다.

아류로 살아가기. 식물 이름에는 유난히 ‘개’자가 붙은 것이 많다. 개썩부쟁이, 개망초, 개진달래... ‘개’자가 붙으면 아류, 짝퉁, 이미테이션이라는 느낌이 있다. 식물에도 이렇게 이미테이션이라는 것이 통하는 것일까? 식물은 그냥 서로 다른 채 존재하는 것 같은데, ‘너는 진달래, 너는 개진달래’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누구의 기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도 인간계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름 없는 잡초는 ‘아직 이름이 붙지 않은 풀’이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너는 개진달래’라고 확정지어버린 것이 꼬리표처럼 느껴져 왠지 안쓰럽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서처럼 ‘그 모양과 빛깔에 맞는’ 이름을 붙여 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수류지를 향하는 길은 이곳이 수원이 만나 할 정도로 시골의 느낌이 나고 정겹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았던 버들 가까이에서 보기도 하고, 해가 지는



논의 풍경은 편안함을 준다. 예전에도 보았던 꽃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또 그 꽃 속에 온 세계가 들어있는 것처럼 정교하고 질서가 있다. 무엇인가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본적 있던가. 그 색깔과 조화로운 배치하며, 가장 예쁜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듯했다.

각기 다른 꽃이지만 각기 다른 매력을 갖춘 모습들. 짧은 시가 떠오른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나태주의 <꽃>

꽃이 이러하매, 사람은 또 어떨까?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길 위의 배움을 마치며

이번 여행길을 통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길 위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것이 배움으로 가득 찬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다. 광교산의 많은 풀과 나무, 꽃들, 그리고 동물들이 나에게 큰 선생님이 되었던 것 같다. 그들은 존재하며 온몸으로 보여 주는 것 같다. 다만 그것을 발견할 눈이 나에게 없었고, 이를 만나게 해줄 길잡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길 위를 자유롭게 즐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느낌과 더불어 배움으로 끌어주는 ‘길 위의 학교’가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여행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

2013. 10. 5.
최지영 공정여행가 양성과정 1기

술은 百樂之長(백락지장), 百藥之長(백약지장)

평소 술을 즐겨 마시다 보니 불혹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변변한 취미 하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무미건조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적당한 취미를 고민하던 중 知好樂(지호락, 아는 것 보다는 좋아하는 것이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이 낫다)이란 말이 있듯이 이왕 취미를 가질 바에는 좋아하는 술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 막걸리교실을 수강하게 되었다.

첫 강의에는 내 생의 첫 술빚기란 주제로 이론 강의와 함께 직접 실습을 하였다. 어려운 화학공식도 알려 주셨지만 효모(Yeast)가 당을 먹어 알코올을 생성한다는 사실이 귀에 쏙 들어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술을 잘 빚기 위해서는 소독과 청결, 원료배합비율, 적정온도 유지를 강조하였다. 그동안 술이 어떻게 만

들어지는지도 모르고 마시는 데에만 전념해온 자신의 무지에 살짝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직접 빚은 술을 들고 집에 가는 길은 술이 잘되기를 바라는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다.

두 번째 강의에는 막걸리 문화 변천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생막걸리, 살균막걸리 등 다양한 막걸리를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나름 입맛이 민감하다고 생각했는데 생막걸리와 살균막걸리 구분도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맛을 음미하면서 막걸리를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째 강의에는 차별화된 막걸리 빚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백설기를 이용해 막걸리를 빚었다. 첫 강의 때는 고두밥과 누룩을 사용하였는데 백설기와 쌀알누룩 그리고 효모(Yeast)를 사용한 점이

다른 점이였다. 그리고 울금가루를 넣어 치렀는데 울금색이 참 보기 좋았다.

마지막 강의에는 누룩의 세계란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밀누룩, 밀가루 누룩 등 재료에 따라 균도 다르고 제조기간도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강의 때 담근 술을 각자 가져와 서로 나누어 조금씩 맛보았는데 색깔도 다르고 맛도 조금씩 달랐지만 첨가물이 없는 건강한 막걸리란 생각에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다.

‘술은 百樂之長(백락지장, 백가지 즐거움 가운데 으뜸), 百藥之長(백약지장, 백 가지 약 가운데 으뜸)’이란 말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좋은 술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4주간 이론 강의와 함께 직접 술을 빚어 보니

술이 되어 가는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성을 더한다면 나도 좋은 술을 빚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그리고 함께 수강하신 분들 대부분은 연세가 지긋하셨지만 매 강의 때마다 열심히 필기하시고 질문하시는 모습을 보니 열정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좋은 술 빚는 법과 함께 열정도 배워가는 강좌가 되었고 2학기에 다음 과정이 개설된다면 꼭 수강할 계획이다.

2013. 6. 13.
이정준 수강생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을 글로 남기고 싶어졌다

11월 4일 월요일 아침 10시. 직장인들의 바쁜 출근시간이 지나고 거리가 한산해질 때쯤 우만동 수원시평생학습관 205호는 왠지 낯설어 보인다.

내년 1월 첫 출산을 앞둔 만삭의 햇살맘이 빵을 사들고 들어선다. 뒤이어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하신 사과나무님이 농장에서 가져온 유기농 사과를 한보따리 책상 위에 쏟아놓으신다. 이 분은 수업기간 내내 자신의 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선물해주셨다. 육아휴직으로 학교를 잠시 쉬고 있는 현주맘은 빈번한 가족여행으로 인해 얼굴이 살짝 그을린 모습이다. 굴 두 봉지를 슬쩍 올려놓고 말없이 자리에 앉아버린다. 암 수술 후 완치를 앞둔 목마와 숙녀님은 지난주 시가 예선에 당선되어 고창 서정주문학관에서 1박2일 모임을 하고 오셨다. 요즘 그녀의 말과 행동은 모두의 관심을 받는 중이다. 올 초 명예퇴직을 하신 느티나무님. 여사업가로 한 획을 긋고 잠시 쉬는 나무님 등. 통통 튀는 매력의 소유자 김소라 선생님까지 15명이 모이면 글쓰기 수업이 시작된다.

어느 날 '내 인생의 글쓰기'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다. 열심히 살았고, 아이들이 잘 자라줬고, 때에 맞는 고민만 하면서 살아온 인생이지만 그래도 평범



하게 살아온 내 인생을 글로 남기고 싶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써본 일기와 서럽고 말로 표현 못할 괴움을 삭히고자 수첩에 가끔 남긴 메모가 전부인데 글쓰기가 가능할까? 이런 내 자신에게 어느 날 문득 글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기다니.

첫째 날, 옆자리에 앉은 참가자가 글을 써서 20만원의 상금을 받고 수원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글이 실렸다는 자기소개는 아찔했다. '역시 이런 사람들이 오는 수업인가 봐, 내가 왜 왔을까?' 그래도 곳곳하게 넉 달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어떻게든 글을 쓰고 말겠다는 오기와 어찌하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하는 간절함이 컸나 보다.

수업은 매주 특별한 주제로 두 시간이 금세 지나간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같기도 하고 종교집단의 예배 분위기일 때도 있다. 서로의 글을 읽으며 위로

하고 격려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글과 사람의 매력에 빠져들고 만다. 어느 모임에선 자신의 곁과 속을 달리고도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쓰기 반 모임은 솔직할 수밖에 없다. 글에서 이미 진실한 자신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으니. 수업은 두 시간이지만 수업 후 온라인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다보면 수업은 매일 계속된다.

수업 후 점심을 먹고 커피 한잔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월요일 오후 다른 약속은 불가능하다. 학습관 1층에 있는 담쟁이카페에서 테이블을 붙이고 둘러앉아 커피 마시며 마지막 수다삼매경에 빠지는 시간은 김소라 선생님이 가장 즐기는 시간이다. 그녀는 주제도 필요 없고 형식도 탈피한 이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길 바라는 것 같다. 모두가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이념이 실현되고 있다. 책도 권하고, 전시회 소식도 알려주고, 놀러 갈 틈도 엿본다.

학령기 아이들 귀가시간이 되어서야 우리 모임은 정리되고 아쉬움에 작별인사가 길어진다. 발길 돌려 집에 도착하는 데로 글들이 쏟아질 것이다. 각자



열심히 생활하며 틈틈이 썼다 지웠다 반복한다. 쓸수록 결국엔 휴지통에 버려질 글일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숨겨왔던 아픔이 치유됐을 거라고 믿는다. 아이가 뒤집기 할 때, 처음 문고리를 잡고 일어섰을 때,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첫사랑에 눈뿜을 때, 첫 직장에 출근했을 때, 첫아이가 태어나던 날에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세상이 다시 달라지고 있다.



2013. 11. 6.
이경 수강생

도시에서 삶의 변화를 꿈꾸다

“책읽기에 정해진 방법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육프로그램 취지가 그러한 기술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함께 이웃과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좋은 사람과 좋은 책을 만나게 한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상남 님(책읽기 생활 수강생)

“사실 공유라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렌트와 같은 경제생활과 얼마나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타적으로 주변을 생각하고, 그런 고민에서 나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의 폭을 넓히게 해주었습니다.”

최규선 님(이타적 경제생활 수강생)

“착한 결혼식 부분은 특히 앵콜 강연을 요청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좋은 내용이라서 저를 비롯한 제 주변에도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안수희 님(이타적 경제생활 수강생)

“이론을 단순히 설명하고 습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온 실천가의 강연을 듣는 것은 매우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권수정 님(이타적 경제생활 수강생)

“우리가 단순히 강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분의 저작 혹은 관련된 도서를 읽고 함께 이야기는 나누는 작업이 참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김진영 님(회사생활 수강생)

“공통의 고민,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니 그동안의 갈증이 해소도 되는 것 같고, 재미도 더 배가 되었던 것 같네요.”

정용식 님(회사생활 수강생)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책 속에서 제시된 통계자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가운데 10명 중 9명이 도시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국토 면적의 16%도 안 되는 곳에서 인구의 90%가 모여 산다는 의미인데, 시끌시끌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치솟는 전·월세 값에 마음을 태우고, 비정규직과 실업, 장기간의 취업준비 등이 그렇습니다. 흔히 도시 생활이라고 하면 세련되고 폭넓은 문화생활을 먼저 떠올릴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에 익숙한 우리는 자신을 세련되고 똑똑한 시민이라 여기지만 사실 정밀히 들여다보면 각종 정보에만 밝을 뿐 정작 자기 자신의 생활이 똑똑한 생활인지 왜 행복하지 않은지 혹은 왜 만족



하지 않는지 등을 고민하거나 진단해 볼 수 있는 여유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 생활의 개선 등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 내용이 있어야 할까?’ 하는 고민에서 탄생하게 된 교육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도시의 주인으로서 주체적으로 개인의 삶과 타인의 삶에도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사는 생활을 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더 나은 방식과 정보를 알려주고자 하는 생활백서 뿐만 아니라 여럿이 공부하고, 생활실천가를 통해 배우며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2013. 11. 25.
김정현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수원시평생학습관 사람들



조직소개

관 장	정성원
자문위원회	경창수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김형인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지역센터장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훈련노동연계실 연구위원 송원찬 수원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장 윤세홍 전)수원시청 정책비서관 이성엽 아주대 교육대학원 교수 정건화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정민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남경아 희망제작소 교육센터장 황용원 수원YMCA 사무총장
기획팀	임성미 팀장 / 이보라 연구원 / 이은미 연구원
교육팀	서영리 팀장 / 박은미 연구원 / 유선애 연구원 / 정희연 연구원 / 이재은 연구원
운영지원팀	유정하 팀장 / 손지훈 과장 / 박금명 사원 / 안옥진 총무
반딧불이상담실	조진희 연구원 / 이순애 연구원
시민사회자료관 도요새책방	김정현 연구원 / 권수정 연구원

이용시간 및 주요연락처

시설명	월~금	토	이용문의
기본 개방시간	09:00~21:00	09:00~18:00	070-4477-6510(대관)
반딧불이상담실	09:00~19:00	09:00~18:00	070-4477-6515/6
도요새책방	09:00~19:00	09:00~17:00	070-4477-6518/9
담쟁이카페	09:00~21:00	09:00~18:00	070-4477-6517

※ 휴관일 | 일요일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

수원시평생학습관 공간

3F



2F



1F



2013 수원시평생학습관 운영성과집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정다운 우리학교**

퍼낸 날 2013년 12월
퍼낸 이 정성원
퍼낸 곳 수원시평생학습관

442-1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
전화 031-248-9700
팩스 031-248-9902
홈페이지 learning.suwonedu.go.kr
페이스북/트위터 @suwonedu

* 표지는 문화예술학교 수강생 김영숙 님의 재능기부 작품입니다.

♻ 표지 : 랑데뷰 250g, 내지 : 백색모조 100g, Soy ink

